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평생학습 자발적 비참여 양상의 사회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4개국 PIAAC 데이터를 중심으로 -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김 현 수

평생학습 자발적 비참여 양상의 사회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4개국 PIAAC 데이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한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김 현 수

김현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위 원 장 박 현 정 (인)

부위원장 강 대 중 (인)

위 원 한 승 희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결과를 통해 평생학습 비참여 현상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평생학습 비참여 인구는 그동안 참여 인구의 여집합처럼 간주되어 왔다. 특히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성인 인구는 학습참여 동기가 결여된 심리적 상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이 집단의 구조적인 지형을 그리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성인 인구의 자발적 학습 비참여 현상을 조명하고 이들의 사회구조적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참여양상'이라는 새로운 개념틀을 고안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학습 참여 경험과 주관적인 학습 참여 의사를 교차시켜 사회 성원과 평생학습 참여가 맺는 관계를 설명해주는 분석의 단위가 된다. '평생학습참여양상'의 구분에 따르면, 평생학습 비참여 인구는 '자발적 비참여'와 '참여 소외'로 나눠볼 수 있고, 학습 참여경험이 있는 인구는 '확장적 참여'와 '제한적 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발적 비참여'는 학습 참여 경험도 없고 참여 의사도 보이지 않은 인구, '참여 소외'는 학습 참여 의사는 있었으나 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인구를 의미한다. '제한적 참여'는 참여경험이 있으나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은 없었던 인구, '확장적 참여'는 참여경험이 있고 추가적으로 더 참여하고 싶은 교육이 있었던 인구로 정의된다.

자발적 학습 비참여 인구의 분포를 한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4개국 PIAAC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회구조적인 배경 요인이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때 학습 비참여 현상을 주도하는 것은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었으며,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었다.

자발적 비참여 인구는 한국, 영국, 독일에서 전체 인구대비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많은 성인들에게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이들은 저학력, 저숙련 직종, 고령층 등 주변화된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소외된 인구 집단에게는 학습참여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참여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욕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성인은 두드러지게 저조한 언어능력을 나타냈다. 부족한 초기교육과 일상에서의 학습 부재는 낮은 역량을 고착화시키며, 이는 다시 성인기 학습참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업 성취에 따라 초기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차별화된 선발구조, 중산층과 고학력자 중심의 평생학습 공급방식 등은 학습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두기를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평생학습 무관심 현상의 구조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자발적 학습 비참여 현상은 개인의 참여동기가 결여되거나 학습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학습비참여 현상은 학습과 유리된 구조가 그 속에서 작동하는 개인들에게 학습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감, 낯섦을 내면화시켜 나타나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평생학습 비참여 현상의 원인은 학습 기회가 불평등하게 부여되기 때문이라기보다, 학습에 무관심한 상태가 사회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 비참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학습 친화적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양극화된 문화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주요어 : 평생학습 참여, PIAAC, 자발적 학습 비참여, 학습소외
학 번 : 2014-20878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문제 ····· 6
4. 연구방법 ····· 7
1) 연구절차 ····· 7
2) 연구대상 ····· 8
3) 분석 자료 ····· 9
Ⅱ. 이론적 배경 ····· 12
1. 용어의 정의 ····· 12
1)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참여 ····· 12
2) 형식교육 참여 ····· 14
3) 비형식교육 참여 ····· 15
4) 평생학습 비참여 ····· 16
2. 평생학습 참여 실태 ····· 18
1)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 관한 국내외 조사 ····· 19
2) 평생학습 비참여 인구에 대한 처리 ····· 21
3.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연구 ····· 23
1) 심리적 차원: 평생학습 참여 모형에 관한 연구 ····· 23
2) 구조적 차원: 평생학습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25
4. 평생학습 참여 연구 비판 ····· 28
1) 평생학습 참여는 자발적 선택인가? ····· 28
2) 학습 비참여 집단은 동질적인가? ····· 29
3)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평생학습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가? ··· 31
5. 평생학습참여양상 ····· 31
1) 분석의 두 축: 평생학습 참여경험과 참여의사 ····· 32
2) 분석틀로서 평생학습참여양상 ····· 36

Ⅲ. 자발적 학습 비참여 성인 인구의 분포 ····· 100
1. 각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100
2.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비교 ··· 110
1) 성별 ····· 30
2) 연령 ····· 35
3) 최종학력 ····· 50
4) 이주민 여부 ····· 52
3.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학습참여양상 비교 ····· 55
1) 고용상황 ····· 55
2) NEET ····· 57
3) 직종 ····· 60
4. 언어능력과 평생학습참여양상 ····· 63
1) 언어능력과 학습참여의사와의 관계 ····· 63
2) 자발적 비참여와 언어능력 ····· 65

Ⅳ. 자발적 비참여 현상의 구조적 특징 ····· 68
1. 자발적 비참여 인구분포의 구조적 특징 ····· 68
1) 비대한 자발적 비참여 인구 ····· 68
2) 저역량·저학력과 자발적 비참여 ····· 69
3) 경제활동무관심과 자발적 비참여의 공존 ····· 72
4) 직업: 학습친화 혹은 무관심 ····· 73

Ⅴ. 논의 및 결론 ····· 76
1. 논의 ····· 76
1) 자발적 비참여는 학습‘동기’의 결여인가 ····· 76
2)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자발적 비참여 ····· 77
3)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학습참여 유도 ····· 79
2. 결론 ····· 80

참고문헌 ····· 83
Abstract ····· 89

표 목 차

<표 Ⅱ-1> 평생학습 참여율 국가별 비교 ····· 19
<표 Ⅱ-2> EU의 국가별 학습 비참여 원인(2011) ····· 22
<표 Ⅱ-3> 평생학습참여양상의 특성 ····· 37
<표 Ⅲ-1>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41
<표 Ⅲ-2> 성별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비율 ····· 44
<표 Ⅲ-3> 연령집단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 47
<표 Ⅲ-4> 학력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 51
<표 Ⅲ-5> 이주민 여부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 53
<표 Ⅲ-6> 고용상황에 따른 각 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 ····· 55
<표 Ⅲ-7> NEET여부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 58
<표 Ⅲ-8> 국가별 직종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 60
<표 Ⅲ-9> 국가별 언어능력 평균점수 비교 ····· 65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 수행 단계 ····· 8
[그림 Ⅱ-1] 연도별 한국의 평생학습참여율(2008-2015) ····· 21
[그림 Ⅱ-2] 평생학습 참여집단의 개념적 구분 ····· 30
[그림 Ⅱ-3] 국가별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 32
[그림 Ⅱ-4] 평생학습 참여의사 확인 문항의 구조 ····· 34
[그림 Ⅱ-5] 국가별 평생학습 참여의사 비율 비교 ····· 35
[그림 Ⅱ-6] 평생학습참여양상의 사분면 ····· 36
[그림 Ⅲ-1]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42

[그림 Ⅲ-2] 성별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45
[그림 Ⅲ-3] 연령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48
[그림 Ⅲ-4] 각국의 최종학력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51
[그림 Ⅲ-5] 이주민 여부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53
[그림 Ⅲ-6] 고용상태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56
[그림 Ⅲ-7] 국가별 NEET 비율 ····· 58
[그림 Ⅲ-8] NEET여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 59
[그림 Ⅲ-9] 직종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61
[그림 Ⅲ-10] 학습참여 경험에 따른 언어능력 점수 분포 ····· 64
[그림 Ⅲ-11] 학습참여의사 여부에 따른 언어능력 점수 분포 ··· 64
[그림 Ⅲ-12]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국가별 언어능력 평균점수 분포 ·· 66
[그림 Ⅲ-13]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언어능력 점수 분포(한국) ·· 67
[그림 Ⅳ-1] 한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학력 및 언어능력 분포 ·· 70
[그림 Ⅳ-2]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언어능력 수준별 분포(한국) ·· 71
[그림 Ⅳ-3] 한국의 전체인구대비 NEET여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 72
[그림 Ⅳ-4] 한국의 경제활동상태별 평생학습참여양상 ····· 73
[그림 Ⅳ-5] 직종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 74
[그림 Ⅳ-6] 전체인구대비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직종별 인구 ·· 7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결과를 통해 성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평생학습 비참여 현상의 사회구조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평생학습 참여 인구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평생교육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평생학습 비참여 인구는 참여 인구의 여집합처럼 간주되어 왔다. 특히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성인 인구는 학습참여 동기가 결여된 심리적 상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 집단의 구조적인 지형을 그리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성인인구의 자발적 학습 비참여 현상을 조명하고 이들의 구조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평생학습 비참여인구가 평생교육학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성인의 학습참여가 점차 보편화·전면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른바 지식기반사회와 학습경제의 등장으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참여는 비단 일부 집단의 몫이 아니게 되었다. 학습경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지식기반사회가 가져온 급격한 사회변화는 사회와 세계에 대한 적응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학습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Chapman. J. et al.(2006: xvi)은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중대한 압력 속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삶에 있어서 주변화(marginalisation)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성인의 학습참여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지식인의 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설사 자신이 학습과 무관하다 여기는 사람일

지라도,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점차 사회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학습참여는 '모두'의 일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성인들의 평생학습참여는 개인에게 맡겨진 자율적 활동이 아니라, 한 사회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촉진시켜야 하는 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OECD(2003)가 발표한 보고서 <Beyond Rhetoric>은 각 국가가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최우선적인 과제는 모든 성인들의 학습참여를 확대시키는 일이었다. 최근 세계 각 국 성인의 역량을 직접 측정하여 국제적인 비교를 가능케 한 OECD(2013a)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모든 사회 성원을 역량과 학습을 중심으로 지표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PIAAC의 결과는 주요국 성인들의 역량을 측정하고 그들의 역량과 평생학습 참여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OECD를 축으로 한 국제기구의 관심은 각 사회가 그들 사회 구성원의 역량과 학습의 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증진시키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인들이 평생학습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학습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가치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입체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얻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성인들의 평생학습참여 현상은 평생교육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김영석, 2012).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사회 성원들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참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Eurostat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조사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인 조사와의 호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는 IALS, ALL, PIAAC 등의 국제 조사를 통해 성인들의 역량과 평생학습에 대해 정교하게 조사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들을 바탕으로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평생학습 참여현상에 관한 연구는 학습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한별, 2006). 이들 연구는 평생학습에 참여한 성인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참여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이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성인들의 평생학습참여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주지는 못했다.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모형의 경우에도, 설명력이 최대 30%를 넘지 못한다. 한 성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할 때,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조건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제 성인들의 참여현상을 양적으로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OECD국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평생학습 참여자의 특성만을 파악하는 것은 각국의 평생학습 참여양상을 그려내는 데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평생학습 참여인구와 비참여인구로 구분하는 이분법의 한계 때문이다. 평생학습 비참여 인구를 단지 학습참여경험이 없는 인구로 한정할 경우, 학습비참여 인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습 참여경험의 유무만으로는 평생학습 참여와 비참여에 개입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생학습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각각은 동일한 성격으로 묶기 어려우며, 이때 단순히 참여집단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양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표면적 접근에 그칠 수 있다.

이 논문이 주목한 지점은 평생학습에 비참여 인구를 한 가지 성격으로 유형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지난 12개월 간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 중에는 학습참여에 무관심하거나 스스로 교육 참여를 멀리해온 자발적 비참여 인구가 있는 반면, 학습참여에 관심은 있었으나 시간

적, 비용적 어려움과 같은 외부적 장애요인에 의해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인구도 있다. 이 두 집단을 평생교육 비참여 인구로 포괄하여 분석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 평생학습 참여인구 역시 동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습기회를 확장적으로 탐색하는 인구가 있는 동시에, 학습참여 경험은 있으나 추가적인 학습기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인구가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잠재적 참여자로서 성인 인구는 참여와 비참여의 객관적 경험 유무만으로 이분화될 수 없다.

결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연구가 갖는 한계는 설명방법의 문제라기보다, 설명대상의 문제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관찰하고자 하는 성인을 어떻게 유형화하여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평생학습참여 현상을 지난 12개월간의 학습참여 경험 유무로 구분하는 방식은 관련 논의를 매우 단편적으로 축소시킨다. 평생학습참여의 결과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의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참여 현상을 논의할 때, 객관적인 참여결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참여 의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과 평생학습참여와의 관계를 통해 평생학습참여양상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을 시도할 것이다. 평생학습참여양상은 객관적인 학습참여경험과 주관적인 학습참여의사의 두 축을 통해 성인 인구를 분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평생학습참여 현상을 관찰하는 새로운 렌즈로서 작동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참여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학습참여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학습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자발적 학습비참여' 인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활용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결과는 각 국의 학습비참여 인구를 양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 집단의 배경 변인 및 역량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시도가 될 것이다. 첫째로 평생학습 참여와 비참여라는 이분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평생학습참여양상이라는 사분면의 분류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개인적 동기의 결여로 해석되어온 성인의 자발적인 학습 비참여 현상을 그들의 사회적 조건과 연관시켜 그 구조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의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과 영국, 핀란드, 독일 등 4개국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양상을 분석하고, 평생학습 비참여 현상의 구조적 특징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학습참여에 대한 관심 혹은 무관심은 개인의 '취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 비참여 상태에 있는 성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들여다봄으로써, 개인이 학습과 맺고 있는 관계를 그들의 구조적 위치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평생학습 참여 현상을 다룬 기존 연구들의 분석틀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성인들을 평생학습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으로 구분한 기존의 방식은 '평생학습참여율'이라는 표면적 지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은 평생학습참여에 대한 심리적, 구조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학습참여 경험과 주관적인 학습참여 의사를 교차시켜 사회 성원의 평생학습 참여양상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를 본 연구는 확장적 참여, 제한적 참여, 참여 소외, 자발적 비참여로 명명하여 분석의 틀로 삼았다. 평생학습참여양상의 관점은 각 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확장적 학습참여와 제한적 학습참여, 학습참여 소외와

자발적 학습비참여의 구분은 평생학습과 맺는 관계를 통해 전체 사회 성원을 유형화하는 방식이다. 이 구분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그동안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발적 학습비참여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결과 데이터는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라 표본을 배타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참여양상을 기준으로 각 국 성인들을 4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별로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있는 성인들이 다른 학습참여양상에 있는 성인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구조적 배경에 따라 학습비참여 인구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성인역량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인의 기초언어능력이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하는 점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성인들의 학습 비참여 현상이 그들의 사회적 위치 및 역량수준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앞에서 제기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경험과 참여의사여부를 두 축으로 한 평생학습참여양상의 개념 틀을 구상하였으며, 다음으로 평생학습참여양상을 통해 한국, 핀란드, 영국, 독일의 평생학습참여 현상을 분석한다. 끝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한 평생학습참여양상의 일반적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 무관심 집단의 구조적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학습참여경험과 학습참여의사 여부에 따라 성인들의 평생학습참여양상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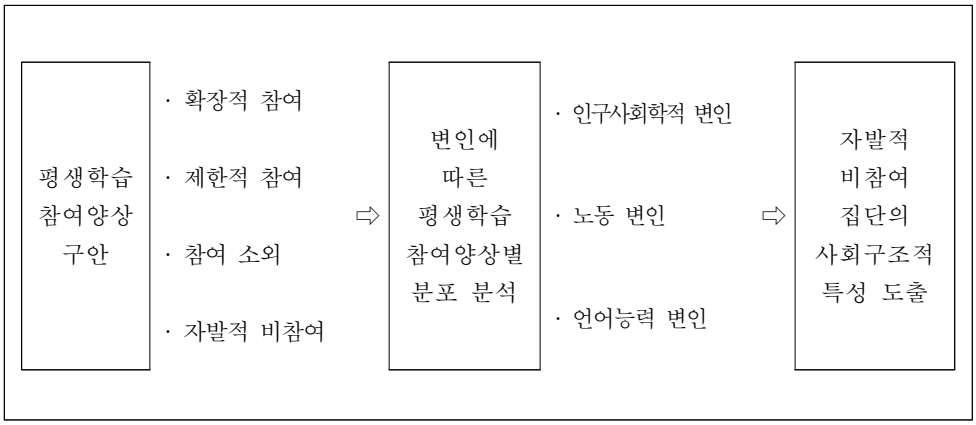
둘째,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경제활동 상태 및 언어능력수준에 따라 각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은 어떠한 분포를 보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자발적 학습 비참여 상태에 있는 성인들은 그들의 사회적 조건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사회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

4.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논문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현상을 '평생학습참여양상'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분석한다. 평생학습참여양상은 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 대한 성인의 참여와 학습에 대한 참여의사를 중층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학습참여양상을 확장적 참여, 제한적 참여, 참여 소외, 자발적 비참여의 4가지 상태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2장에서 '평생학습참여양상' 유형화의 타당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 참여 현상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평생학습 참여 인구와 비참여 인구의 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찰하고, 학습참여 성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평생학습 참여의사'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림 Ⅰ-1] 연구 수행 단계

이어서 3장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양상'의 유형별 특징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선행 연구들은 평생학습참여율에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인구사회학적 배경 요인에 따라 평생학습참여양상의 집단 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그 특징을 검증할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확인한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분포와 그 특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의 '자발적 비참여' 현상의 구조적 특정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실시한다.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성인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는 집단으로서, 이들의 특징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분석은 한국, 핀란드, 영국, 독일의 만 25-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과 핀란드, 독일 세 나라는 한국과 비교할 때 평생교육체제 전반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나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참여양상의 구분이 특정 국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인 인구에서 보편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이에 평생학습 참여의 유형을 관찰할 수 있는 4개국을 선정하여 각 국의 분포적 특징을 드러내는 데에 주목하고자 한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지원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 평생학습정책은 완전고용을 위한 노력과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민중교육(popular adult education)의 깊은 전통에 붙박여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띤다. 사회적 지원이 약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와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와 사회정책에 더 밀접하다(Rubenson & Beddie, 2004: 153). 독일은 평생교육참여율이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산업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공급이 활발한 나라로서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 성인의 연령 기준은 만 25세에서 만 65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연령 기준은 OECD(2013)의 성인교육인구(AEP: Adult Education Population)의 범주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정의에 따라 후기중등교육 졸업 후 고등교육으로 진학하여 아직 이수하지 않은 상태, 즉 초기교육(initial education) 과정에 머물고 있는 25세 이상 성인은 제외하였다. 이들은 정규 형식교육과정을 종료하지 않은 전일제 학생들로서, 뒤늦게 형식 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과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한편 OECD의 정의에 따르면 만 16-24세 인구 중 정규교육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성인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AEP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경우는 제외하였다.

3) 분석 자료

분석 자료는 OECD(2013)가 실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의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PIAAC 조사는 주요국 성인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함과 동시에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 조사는 성인의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참여 여부는 물론, 참여 의사와 참여 장애요인을 함께 조사하여 평생학습참여양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OECD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성인들의 핵심 역량을 면접 평가를 통해 직접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과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보고서에 포함된 참여 국가는 총 24개국이며, 조사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로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당시 각국에 거주하는 만 16-65세에 이르는 성인으로 국가 당 최소 4,500명에서부터 최대 27,300명씩 추출되어 전체 약 16만 6천명이 참여하였다(OECD, 2013). 본 연구에서는 PIAAC 조사결과로 공개된 공용 데이터(Public Use Files, PUF) 중 분석대상 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와 IDB Analyzer를 이용하였으며, 설명변수가 되는 평생학습참여양상을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학습참여로 분류하여 각 유형을 범주변수로 설정하였고, 유형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 연령, 성별, 이주민 여부, 최종 학력, 고용상태, 니트(NEET) 여부, 직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PIAAC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Complex sample design 방식을 적용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PIAAC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된 추정치는 모든 표본에 대해 최종 표본 가중치(final sample weights)를 사용한 한 집단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가중치 적용은 최소한 연령 및 성별의 총계를 조절하기 위해 표준화되어야 하며, 국가별로 고유한 표본 가중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가중치 부여 방식의 복잡성과 국가 간 비교의 표준화를 위하여 OECD는 분석 도구인 IDB Analyze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DB Analyzer를 활용하여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IDB Analyzer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역량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IAAC에서 측정하는 역량 점수들은 Plausible Values로 제공되어 SPSS를 통한 단순 평균치를 사용할 수가 없다. Plausible Values는 '해당 학생과 비슷한 특성과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갖는 능력 추정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Plausible Values에서는 응답자들의 능력 모수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대신, 그것의 확률분포를 추정하는데, 이러한 확률분포는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과 문항반응패턴을 근거로 경험적 방법으로 산출한다(최수정, 2013). Plausible Values의 활용을 위해서 OECD에서는 IDB Analyzer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의 편이를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역량 점수의 활용에 대해서는 IDB Analyzer 프로그램의 결과를 따랐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다루게 될 분석틀로서 '평생학습참여 양상'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선행 연구들이 성인의 평생학습참여를 어떠한 기준과 관점으로 관찰하였는지 이해하고, 그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 연구의 전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평생학습참여 양상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1. 용어의 정의

1)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참여

먼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참여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은 사실 양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한숭희(2009)는 평생학습을 '전 생애에 걸쳐 경험을 재구성해 가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종의 추상적인 표현이며 개별적인 학습활동을 각각 지칭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참여와 비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개념이 학문적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의 비어있는 개념'이라는 주장(Gustavsson, 1995), 시장에 유리한 이데올로기에 붙박인 용어라는 견해(Rubeson, 2001) 및 시장중심 사회에서 자기실현을 위한 개인적 과정에서 중요한 메타포로 기능한다는 주장(Jansen et al. 1998) 등을 고려할 때, 평생학습 개념은 양화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평생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학습 참여라고 특정할 것인가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평생학습 개념의 공통된 이해를 촉진하고 참여의 수준을 지표화하기 위하여 OECD와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는 학습활동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한숭희 외, 2007). EU(2002: 7)는 평생학습을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고용 및 노동 등과 관련한 지식, 기술 그리고 역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학습활동으로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및 무형식 학습에 참여하는 총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때의 학습활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먼저 학습을 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모종의 조직적인 과정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이 때 평생학습 참여는 형식교육 참여와 비형식교육 참여, 무형식학습 활동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무형식학습은 ‘사적이고 비조직적인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발생’(Illeris, 2004)한다는 특징에 따라 개별적인 학습활동 경험으로 지표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국내외 조사는 대체로 형식교육 참여와 비형식교육 참여 경험을 합하여 평생학습참여율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비형식교육의 경우, 그 형태와 범주에 대해 통일된 조사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마다 참여율에 차이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참여’를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참여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참여는 조직화되어 있는 학습활동으로서, 참여와 비참여를 구분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활동으로 관찰할 수 있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도 성인의 학습 참여를 형식교육 참여와 비형식교육 참여를 합하여 양화시키고 있다. 단, 이때 성인의 학습 활동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학습 경험은 배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식 및 비형식교육 참여로 특정화할 수 없는 무형식 학습활동은 본 연구에서 포괄할 수 없다.

2) 형식교육 참여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은 국가의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개념 정의를 따라 형식교육을 “학교, 대학, 기타 공식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아동에서 청년이 될 때까지 ‘계단식’의 지속적인 전일제 교육”으로 정의한다(OECD, 2013: 457). 즉, 형식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서, 과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가 공인된 학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계단식’의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준에 따른 위계가 나누어진다.

PIAAC에서는 형식교육 참여 여부를 다음의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 지난 12개월간, 형식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전일제(풀타임)나 시간제(파트타임)학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지난 12개월 간 형식 학력(formal qualification)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의 참여 경험은 학력을 최종적으로 취득했거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정에 참여했으나 중도 포기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응답자가 ‘형식 학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초등이나 중등교육, 대학 또는 중등후교육(post-secondary) 등을 지칭한다는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25세 이상 성인의 형식교육 참여는 주로 고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중등후교육 단계에 속하는 학력인정 단기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나, 성인을 위한 중등 및 초등교육 과정 역시 포함된다.

3) 비형식교육 참여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은 형식적 교육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조직적인 학습기회를 말한다(Merriam. B, 2007: 24).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수자나 촉진자가 있는 조직화된 학습활동이지만, 국가의 학력인정체제에 의해 관리되지는 않는다. 이 연구에서 비형식교육은 PIAAC 조사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PIAAC에서는 비형식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게 조직되고 지속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된다. 비형식 교육은 그러므로 교육기관 내부 혹은 외부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모든 연령의 참여자를 위한 교육이다. 국가 환경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기본교육, 일상생활 기술, 직무기술, 일반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룬다.(OECD, 2013a: 449).

PIAAC 조사에서는 비형식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를 다음 4가지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 지난 12개월간, 이러닝이나 원격강의, 사이버 강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간, 업무 수행에 체계화된 교육훈련(OJT) 혹은 상사나 동료가 진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간, 세미나나 워크샵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간 이제까지의 응답에 포함되지 않은 강좌를 듣거나 개인 교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 과정에서는 비형식교육을 특정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는 대신, 네 가지의 구체적인 학습 활동 경험을 통해 비형식교육 참여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원격학습 참여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전자매체나 우편을

통해 교수자나 안내자를 학습자와 연결시켜주는 학습 형태를 조사하였다. 이는 일대일의 학습만이 아니라 원격 세미나와 같은 형태도 포함한다. 두 번째 질문은 직장에서의 학습경험을 확인한다. 이때의 학습은 주로 고용자에 의해 실시되며, 직장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이나 특정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된다. 세 번째로 세미나나 워크샵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세미나와 워크샵은 집단적인 학습을 위해 조직된 모든 형태의 교육기회를 포괄한다. 네 번째로 기타 강좌나 개인 교습을 조사하였다. 이 경우는 주로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 마련한 강좌나 교습에 대한 참여를 확인한다. 특히 강좌를 제공하는 사람과 응답자가 교수자-학습자 관계로 만났다면,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하지만 응답자가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단지 도움을 주거나 지원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 응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형식교육 참여 경험은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간 위와 같은 학습 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 참여했을 경우에,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역량과 학습참여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PIAAC의 조사 목적에 따라, 비형식교육의 항목도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의 학습활동이나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의 활동을 조사하여 직업과 학습참여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직장 밖에서의 각종 강좌나 수업에 대해서는 기타 학습활동으로 간주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PIAAC이 조사하고 있는 비형식적 학습활동은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평생학습 비참여

평생학습 비참여는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정의로부터 유도되어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PIAAC조사에서는 조사 기준일로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교육 및 비

형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 비참여 인구로 간주된다.

기존 연구에서 평생학습 비참여 인구를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다룬 경우는 주로 성인학습자에 대한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습에 대한 태도 및 동기를 중심으로 성인학습자의 속성을 분석한 이들 연구들은 평생학습 비참여 상태를 성인학습자의 한 가지 유형으로 관찰하고 있다.

Hendrickson(1989)은 학습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자를 학습 적대자(Learning Antagonists), 학습 옹호자(Learning Apologists), 적극적 학습 활동가(Learning Activists)로 분류한 바 있다. 학습 적대자는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현 상태에 안주하는 사람들로, 평생학습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부감을 느낀다. 학습 옹호자는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습에 참여하지만, 교육에 의존적이고 학습을 통해 자신을 주도적으로 발달시키지는 못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학습 활동가는 학습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이다. 이 연구는 학습 비참여 인구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개념적 차원에서의 구분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정민주(2012), 전은선(2013), 김진화・전은선(2013) 등이 평생학습자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여 소극적 평생학습자, 의존적 평생학습자, 주도적 평생학습자, 이상적 평생학습자의 개념범주를 시도한 바 있으며, 김진화 외(2013)에서는 앞의 4가지 분류에 적대적 평생학습자를 추가하여 5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Bolhuis(2003), Collins(2009), Watson(1999) 등이 제시한 평생학습자의 특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자의 특성을 목록화한 뒤, 설문조사법을 통해 성인학습자를 분류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실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자의 속성과 학습태도 등을 분석하여 성인학습자를 군집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개인적 속성을 측정하는 데에 집중하여, 평생학습자로서의 성격을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하여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박양주・황지원・남신동(2014)은 학습 참여동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잠재수요집단을 분류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성인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 참여동기 유형에 따라 성인을 적극수요형, 자아실현형, 경력개발형, 무관심형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에 대한 성인의 심리적 구인으로서 학습 참여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데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함께 분석하여 학습동기와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결론에 이르러 참여동기의 이념형만으로는 성인들을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잠재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단 개별 성인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지향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회문화역사적 요인들의 영향이 더욱 결정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성인학습자를 분류하고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학습 비참여는 개인적 동기의 결여 혹은 부정적인 학습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접근은 학습 비참여를 개인의 심리적 상태이자 개인적인 속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에 대해 심리적 장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학습에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사람들을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 속성으로 간주한다면, 실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다. 박양주・황지원・남신동(2014)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학습동기를 통해 학습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이해해야만 평생학습자 그리고 학습 비참여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생학습 참여 실태

이 절에서는 평생학습 참여 현상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실시된 평생학습 참여 조사의 결과를 통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가 보편화되어가는 추세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 관한 국내외 조사들에서 학습 비참여 현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 관한 국내외 조사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 관한 기존 논의는 평생학습참여에 대한 조사범위가 서로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의 국제비교 조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실시되면서 점차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OECD는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를 위한 조사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조사가 IALS(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ALL(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PIAAC 등이다.

<표 Ⅱ-1> 평생학습 참여율 국가별 비교

	IALS	ALL	PIAAC
한국	33.4	11.1[1)]	50.1
영국	43.9		56.0
독일			53.0
핀란드	56.8		66.5
노르웨이	47.9	53.3	64.3
미국	39.7	54.6	59.3
스웨덴	52.5		65.9
캐나다	37.7	49.3	58.3
조사년도	1994-1998	2003	2012

*자료: 최윤정(2015)의 자료를 재구성함.

1) 국제조사와의 연계를 위해 국내에서 별도로 실시한 임언 외(2005)의 조사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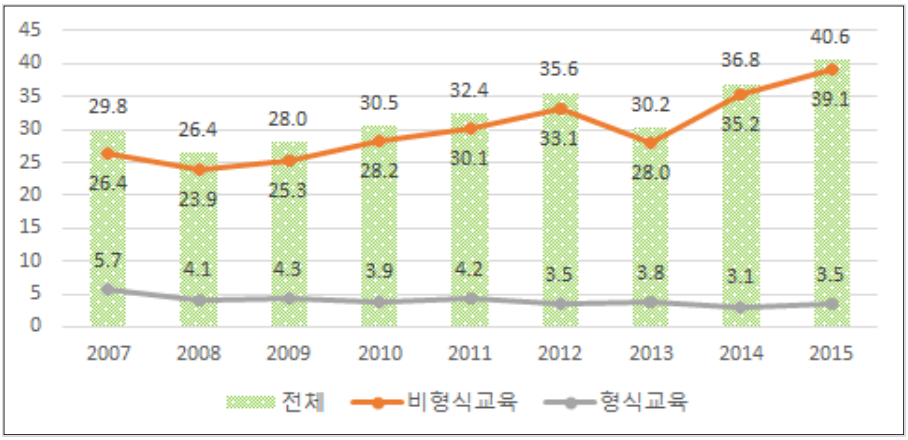
<표 Ⅱ-1>은 각 조사를 통해 보고된 주요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따라 측정하는 평생학습의 범주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0여 년간 평생학습 참여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IALS의 조사에서는 33.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의 PIAAC 조사에서는 50.1%를 기록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 및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여 10%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형식교육 참여율의 경우 4.7%로 OECD평균인 1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형식교육 참여는 원격교육과 개인교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현장훈련 방식의 비형식교육은 비교적 작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임언 외(2005)가 2004년 OECD와 캐나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성인 문해 및 생활능력 조사(AL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16-65세 성인 5,506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전일제 학생을 제외한 평생학습 참여율을 11.1%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 결과에 따른 21.6%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인데, 임언(2006)은 이에 대해 ALL의 조사가 비교적 체계적인 학습형태에 한정하여 질문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 결과에 TV나 라디오 강좌를 통한 학습경험을 포함할 경우, 참여율은 19.2%로 사회통계 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 실태에 대한 국가 단위의 조사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부터 매년 학습자 차원에서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생학습실태조사 기초연구(한숭희, 2007)를 토대로 한 이 조사는 Eurostat AES(Adult Education Survey)를 기반으로 국제기구의 조사와 호환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전국 만 25-64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양상과 참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림Ⅱ-1] 연도별 한국의 평생학습참여율(2008-20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p41의 그래프를 재구성.

[그림 Ⅱ-1]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015년 기준 40.6%를 기록하여, 최초조사인 2007년 29.8%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교육 참여율은 5.7%(2007년)에서 3.5%(201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평생학습 참여가 비형식교육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평생학습 비참여 인구에 대한 처리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조사한 국내외 조사들은 학습 비참여 인구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학습 참여와 참여의사에 대한 질문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5)에서 발간한 '20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는 '평생학습 참여 희망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 희망 정도는 PIAAC에서 확인하는 참여희망 프로그램의 유무와 동일한 설문 문항이다.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9.1%가 참여하고 싶었던 교

육이나 학습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반대로 60.1%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습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PIAAC 조사에서는 같은 문항에 대해 66%가 참여희망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대답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참여희망 프로그램이 있었던 응답자 39.1% 중 실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자는 42.0%였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프로그램 참여를 스스로 원하여 참여까지 한 성인은 약 16.4%에 불과하다. 즉, 이른바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기회를 찾아 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학습자는 크게 보아도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 조사에서는 EU(2015)가 실시하고 있는 eurostat의 평생학습통계(Lifelong learning statistics)의 자료에서 학습비참여의 자발성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조사는 EU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평생학습 참여 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학습 참여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표 Ⅱ-2> EU의 국가별 학습 비참여 원인(2011) (단위: %)

	건강이나 연령 문제	거리상의 문제	가사에 따른 시간부족	선행자격 부재	비용 부담	고용주 지원부족	업무에 따른 시간부족	직업관련 필요없음	개인적 필요없음	원하는 교육을 찾을 수없음
EU	8.5	6.1	20.9	4.2	13.2	8.0	18.0	50.0	14.6	8.6
독일	12.1	5.6	23.0	7.0	13.3	10.6	21.2	76.4	19.0	10.0
프랑스	5.1	6.3	6.5	4.5	11.6	14.1	15.7	78.6	5.8	9.8
이탈리아	8.7	10.3	31.8	5.1	22.2	4.8	25.0	14.8	17.0	13.9
핀란드	12.8	15.9	21.7	4.7	11.1	10.6	31.1	39.8	12.1	13.5
그리스	18.3	10.4	39.3	10.4	28.4	5.7	23.2	42.2	21.7	21.3

※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Ⅱ-2>는 Eurostat을 통해 조사된 EU의 국가별 학습 비참여 원인을 보여준다. 모집단은 학습참여 경험이 없는 인구이다. EU 평균을 보면, 직업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다(Did not need it for Work)는 응답이 50%에 달하고,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었다(Did not need it for personal reasons)는 응답 또한 14.6%를 기록했다. 학습 비참여 현상의 원인은 시간이나 비용 등의 외부적 장애요인이라기보다 스스로 학습 참여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자발적' 비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연구

이어서 평생학습참여 영향요인 및 장애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성인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들은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라는 단일 요소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평생학습 참여에 이르는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평생학습 참여 과정을 모형화한 연구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 현상에서 심리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이 어떻게 혼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심리적 차원: 평생학습 참여 모형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참여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은 Cross(1981)가 제시한 반응연쇄모델(Chain of Response Model: COR)이다. Cross는 교육 참여에 이르는 성인의 판단과 대응 과정을 통해 참여 모형을 제시

하였다. 이 모델은 학습활동에 대해 성인이 갖게 되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학습참여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김한별, 2010).

반응연쇄모델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학습자는 자기평가와 교육에 대한 태도가 상호작용한 결과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교육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느껴지는가' 혹은 '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가'를 통해 결정된다. 다음 단계로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기회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교육 내용이 자신에게 유용한지, 학습참여의 결과로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참여를 둘러싼 환경 조건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도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참여가능성을 낮아질 것이다. 반면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회, 참여가 용이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학습참여는 쉽게 일어날 것이다. Cross의 모형은 이러한 단계들이 선형적으로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때, 학습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Darkenwald & Merriam(1982)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환경적 요소들이 성인의 학습참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들이 제시하는 심리사회적 상호작용 모형은 총 8가지 요인을 통해 학습참여와 비참여 문제를 설명한다. 이를 나열하면 성인기 이전의 사회경제적 배경, 정규학교교육 과정 및 사회화,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습압력, 성인교육의 유용성과 지각된 가치, 참여준비도, 참여자극, 장애 등이다. 각 단계에서 참여에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참여가능성은 증가한다. 이 연구는 학습참여에 대한 성인의 심리적 결정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에 대한 기대, 참여 장애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다고 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개인이 학습참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적, 환경적 요소들을 내적인 차원에서 묘사하였다. 연구자가 특히 주목

하는 지점은 학습에 대한 참여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장애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과정이다. 두 지점을 분기점으로 할 때, 성인들은 참여의사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참여의사가 발생하였으나 장애요인에 의하여 포기된 수준, 참여의사가 발생하고 장애요인도 극복하여 참여에 이르는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성인의 학습 참여 결과만이 아니라, 학습참여의사의 유무 역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성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개인의 내적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들 연구들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성인의 교육 참여 동기를 충분히 예측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Courtney, 1992; Ginsberg. M & J. Wlodkowski: 28에서 재인용). 특히 학습자를 주도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상정하여 그를 둘러싼 구조적 배경에는 소홀했다는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김한별, 2010). 이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배경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성인의 학습참여 현상에 나타나는 계급적, 경제적 불평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확대되었다.

2) 구조적 차원: 평생학습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성인의 학습참여를 개인적인 관심이나 환경보다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계급이나 민족, 젠더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는 성인의 사회적, 교육적, 노동적 조건이 성인의 학습참여에 불평등을 나타내는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 2007).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평생학습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돈민・이세정・김세화(2008)의 연구는 한국의 만 25-64세 성인 3,000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참여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 신규참여에 는 나이, 성별, 교육년수

와 같은 개인변수와 소득 및 거주지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생학습의 지속적인 참여에는 직업변수와 교육년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중 교육년수는 평생학습 참여와 지속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직업변수에서는 사무관리직, 자영업, 주부, 노무직의 순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2009)은 200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ALL조사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한이 짧을수록, 자원봉사 활동수가 많을수록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연한이 짧을수록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학력과 평생학습 참여와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던 일련의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한숭희・신택수・양은아(2007)의 연구는 개인의 역량이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배경 변수 외에 언어능력, 수리력, 자기학습력, 시민문화능력, ICT능력으로 조사된 주관적 역량 수준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습관 및 학습 경향성을 대표하는 학습패턴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습패턴 요인 중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역량 요인 중에서는 자기학습, 기초지식, 언어능력, ICT 등 투입된 모든 역량이 학습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패턴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기존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령,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의 변수는 영향력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배경변인 중에는 학력과 성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준종(2004)은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로 나누어 각 집단에 특화된 다양한 변수들을 투입하여 직업관련 평생학습의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근로자들은 여성, 기혼, 연령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안정 및 직무만족도는 높을수록 직

업관련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미취업자의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요인에서는 성, 연령,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 등 일반적으로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이 있다고 알려진 요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학력과 희망임금수준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배경 요인이 학습 참여에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학력은 평생학습참여율을 정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증가시키는 요소였다. 연령 또한 평생학습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젊은 성인들이 노년층 성인들에 비하여 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 역시 평생학습 참여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취업상태에 있는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실업 상태나 비경제활동상태의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직업은 가장 학습 참여의 격차가 뚜렷한 변인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일용직이나 생산직의 학습 참여율이 가장 낮고, 판매・서비스직, 관리・전문직, 사무・기술직으로 갈수록 참여율이 높아 직업의 전문성이나 기술수준, 입직 당시의 학력 등 직업의 지위가 직업관련 학습의 참여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7).

이상의 결과는 평생학습 참여에 사회구조적 배경 요인이 뚜렷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 대한 분석은 각 영향요인에 따른 분포와 그 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이해할 수 있다.

4. 평생학습 참여 연구 비판

앞에서 평생학습 참여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접근을 살펴보았다. 먼저 평생학습 참여 모형에 대한 연구는 학습 참여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마주하는 심리적인 대응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들은 성인의 학습참여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기회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Fassinger(2008), Merriam et al.(2007) 등이 지적한 대로, 사회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할 때에만, 성인의 학습참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Rubenson(1998)에 따르면 성인의 학습참여는 사회적 구조들, 기관의 절차, 개인적 성향과 태도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분석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를 논할 수 있다. 성인들의 학습 준비도와 학습의 장애요소는 사회구조적, 제도적, 개인의 의식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ubenson, 1998: 259)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심리적, 구조적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당위적인 전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평생학습 참여 성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심리적 요인 혹은 구조적 요인 중 어느 한 측면에서만 사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1) 평생학습 참여는 자발적 선택인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에 자발적 선택이 선행된다는 전제는 재고되어

야 한다.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이 아닌 평생학습은 자율적인 성인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는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반드시 자기주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PIAAC의 조사 결과는 특히 직장인에 대한 의무적인 세미나 혹은 워크숍 참석, 현장에서의 훈련 등이 비형식교육 참여율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ECDa, 2013). PIAAC 보고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의무사항'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미국은 28%, 핀란드 23,7%, 영국 20.3%, 한국 19.4% 등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은 16.2%). 즉, 평생교육 참여는 반드시 성인의 자발적인 학습참여의사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참여 인구 중에서는 자발적인 학습의지가 없는 인구, 의무적인 학습참여나 우연한 학습기회를 획득하였으나 추가적인 학습의지는 없는 인구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들을 모두 동일한 평생학습 참여 인구로 포괄하여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학습 비참여 집단은 동질적인가?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기존의 조사 및 연구들은 평생학습 비참여 집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을 보였다. 이들 조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가 학습에 참여하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데에 있었다. 이에 따라 학습 비참여 집단은 참여 집단의 여집합으로 간주되었고, 이들의 특징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혹은 참여하지 못한 학습 비참여 집단은 지난 12개월 간 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참여하지 않은 성인들이 있는 동시에,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장애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한

성인들이 혼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Ⅱ-2] 평생학습 참여집단의 개념적 구분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 경험 외에 학습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사가 성인 집단을 구성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평생학습 참여 모형 관련 연구들은 학습 참여에 이르는 성인의 내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Cross(1981)와 Darkenwald & Merriam(1982)의 모형은 성인의 심리적 변화를 단계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그림 Ⅱ-2]와 같이 세 단계로 도식화할 수 있다. 출발하는 지점은 학습참여에 무관심한 상태이다. 자기 평가와 교육에 대한 태도 간의 상호작용 혹은 성인기 이전의 배경과 학습경험 등은 학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에서 부정적 요인이 많을 경우, 학습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무관심상태는 '나는 학습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학습하는 것은 흥미도 없고 고통스러워', '학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등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장애요인에 의해 참여가 저해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장애요인은 참여 촉진요인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개인적인 측면보다 환경적, 상황적인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학습에 대한 참여 의지가 있고 장애요인도 제거하여 학습참여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학습참여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후의 학습에 추가적인 참여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에 참여한 결과와 참여 의지의 여부는 구분지어서 관찰해야 한다.

3)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평생학습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가?

사회구조적 요인만으로 평생학습 참여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령, 성별, 학력, 역량, 경제활동상태 등 다수의 사회구조적 요인이 평생학습의 격차를 설명하고 있으나, 어떠한 변수를 투입하더라도 설명력은 3할을 넘지 못한다. 이는 평생학습 참여 인구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관찰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대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평생학습 참여 인구는 참여 의사와 학습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배경 요인을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평생학습 참여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학습에 대한 참여 경험이라는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각 개인이 학습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 개인의 차원에서 학습참여라는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습에 대한 태도라는 양면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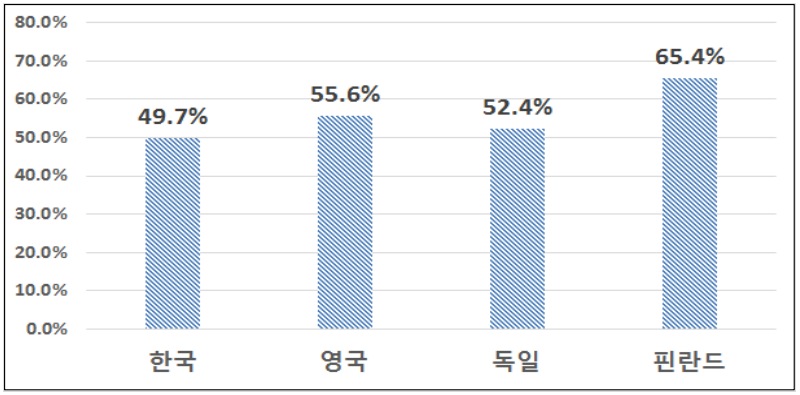
따라서 평생학습에 참여 경험의 유무와 함께, 학습참여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사 그리고 개인의 사회구조적 배경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성인의 학습 참여 현상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5. 평생학습참여양상

이 절에서는 '평생학습참여양상'이라는 분석틀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평생학습 참여 현상을 관찰하는 기준은 평생학습 참여 경험의 유무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학습 참여와 비참여의 이분법은 참여현상을 충분히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참여경험과 함께 학습 참여의사라는 새로운 기준을 병합하여 '평생학습참여양상'이라는 분석틀로 성인들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1) 분석의 두 축: 평생학습 참여경험과 참여의사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평생학습 참여와 비참여의 구분은 평생학습참여율이라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평생학습 참여여부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참여 경험을 합하여 참여율을 계산한다.



[그림 Ⅱ-3] 국가별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AEP 기준)

[그림 Ⅱ-3]은 각 국 성인교육인구(AEP)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여준다. 한국, 핀란드, 독일, 영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비교해보면 핀란드의 학습참여율이 65.4%로 높게 나타나고 영국 55.6%, 독일 52.4%, 한국 49.7% 순으로 나타난다. 학습참여율이라는 수치는 국가별로 평생학습이 보편화된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그러나 학습 참여율은 각 국의 성인들이 평생학습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이다.

기존의 평생학습 참여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는 좋은 것이며, 각 국가의 교육정책은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율이라는 수치의 확대 이면에는 학습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에 속하는 성인들이 학습에 대하여 어

떠한 태도와 관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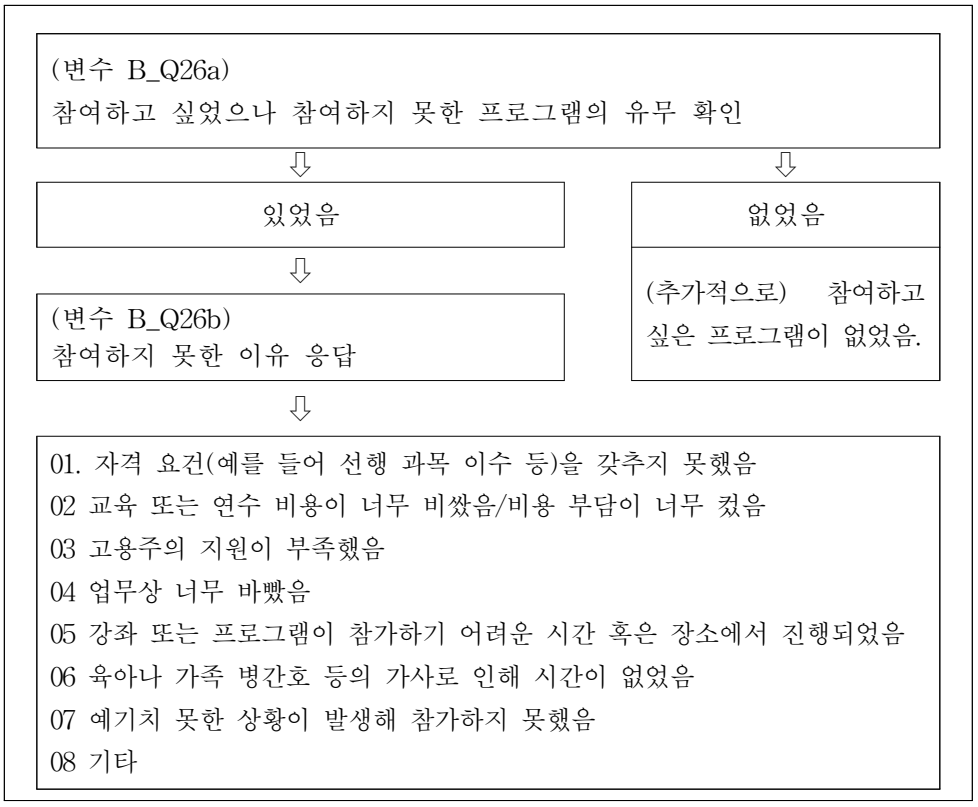
다시 말해, 평생학습참여율 지표는 평생학습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을 각각 동질적인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그 내부의 이질적인 성격을 드러내지 못한다. 즉, 지난 12개월간의 평생학습 참여경험 여부는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의사 유무를 중요한 척도로 제시하였다.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의사는 학습참여를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이자 참여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PIAAC에서는 학습참여 의사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 지난 12개월간, 참여하고 싶었으나 실제로 참여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까? 학교교육과 그 외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해 말씀해주십시오.

(In the last 12 months, were there ^MoreAny learning activities you wanted to participate in but did not? Include both learning activities that lead to formal qualifications and other organised learning activities.)

이 질문은 학습참여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학습기회가 있었는가를 확인한다. 이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데에 실패한 것인지, 혹은 참여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림 Ⅱ-4]는 학습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문항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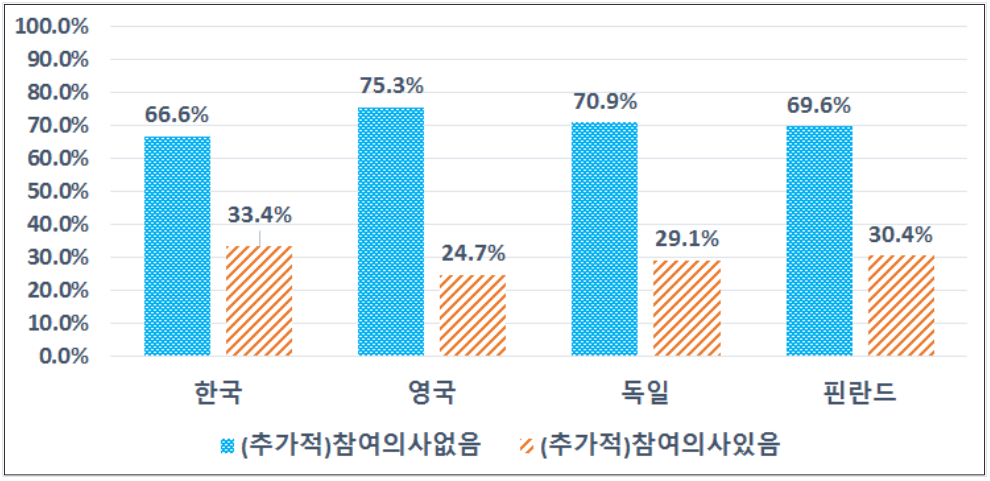


[그림 Ⅱ-4] 평생학습 참여의사 확인 문항의 구조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적어도 학습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이들 응답자는 학습 참여에 실패하게 된 장애요인을 이어지는 문항(B_Q26b)에서 답하도록 했다. 이 때 참여를 가로막은 장애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나 시간적 요인 혹은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다. 즉, '있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외부적 장애요인 탓에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참여의지는 있었던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추가적인 학습에 대한 의사나 요구가 개인적으로 없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원하는 학습 기회를 충분히 누렸기 때문이거나, 학습 기회에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림 Ⅱ-5]는 국가별로 평생학습 참여의지가 있었으나 참여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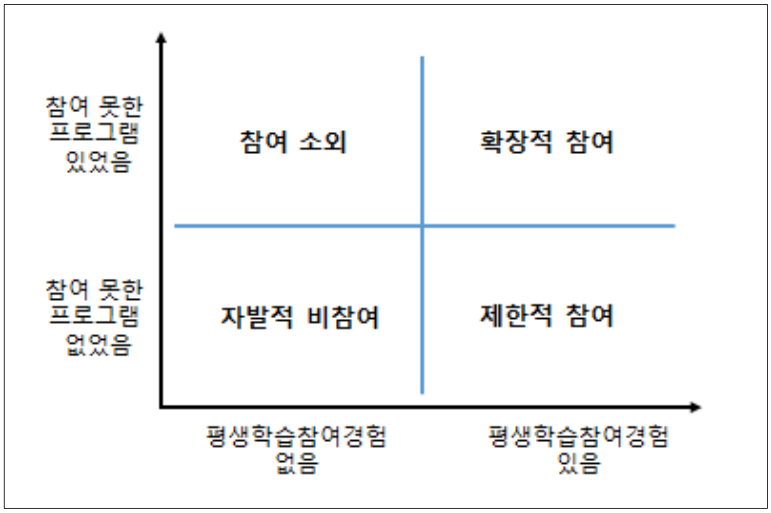


[그림 Ⅱ-5] 국가별 평생학습 참여의사 비율 비교(AEP 기준)

참여의사가 있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그 사회에서 학습에 대한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하지 못한 인구의 크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학습기회를 찾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인구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림 Ⅱ-5]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추가적인 참여의사가 있었던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성인들이 학습에 대한 적극성 또는 학습참여에 대한 압박을 가장 크게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외부적 장애요인에 의해 학습참여가 실패하는 인구가 많은 상태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학습 참여의사의 여부는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평생학습 참여 여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성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2) 분석틀로서 평생학습참여양상

객관적인 평생학습 참여경험의 여부와 주관적인 평생학습 참여의사의 여부는 한 개인이 평생학습과 맺고 있는 관계를 드러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참여 여부와 평생학습 참여의사를 두 축으로 하여 '평생학습참여양상'이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Ⅱ-6] 평생학습참여양상의 사분면

[그림 Ⅱ-6]에서 평생학습 참여경험과 참여의사 여부를 교차하여 평생학습참여양상의 사분면을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있으며 추가적인 참여의사가 있었던 인구를 '확장적 참여' 상태로, 평생학습참여경험이 있으나 추가적 참여의사는 없었던 인구는 '제한적 참여' 상태로 명명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의사는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했던 인구를 '참여 소외' 상태로, 평생학습참여경험이 없고, 참여의사도 없었던 인구는 '자발적 비참여' 상태로 구분하였다.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특성은 <표 Ⅱ-3>에서 제시하였다.

<표 Ⅱ-3> 평생학습참여양상의 특성

구 분	평생학습 참여경험 여부	평생학습 참여의사 여부	특 성
확장적 참여	학습참여 경험 있음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으나 못함	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함
			학습참여경험은 있으나 부족함을 느낌
제한적 참여		추가적인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없었음	이미 학습참여가 충분하다고 느낌
			더 이상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참여 소외	학습참여 경험 없음	참여하고 싶었으나 못함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참여에 실패함
자발적 비참여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없었음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었거나 찾아보지 않았음
			학습 참여에 관심이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 확장적 학습참여

평생교육에 대한 ‘확장적 학습참여’ 집단은 지난 12개월 간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참여경험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던 집단이다. 이들은 학습참여 기회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학습참여에 대한 의지 또한 표명한 사람들이다.

확장적 학습참여 집단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누리는 동시에, 더 많은 학습 기회에 대한 확장적 욕구

를 갖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평생학습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그 경험이 비자발적이거나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학습 욕구를 갖는 경우이다. 둘 중 어떠한 경우라도 이 집단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으로 보장받았으며, 동시에 학습에 대해 지속적인 참여의사를 보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한적 학습참여

평생교육에 대해 '제한적 학습참여' 집단은 지난 12개월 간 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은 없었다고 응답한 집단이다.

'제한적 학습참여' 집단 역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학습에는 참여하였으나 그 이상의 학습 의욕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학습참여에 대해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욕구를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한편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평생학습에 이미 충분히 참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습 만족 상태에 있는 집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 참여는 추가적인 학습에 대한 의지와 욕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학습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학습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는 것은 확장적 학습 활동에 소극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학습참여기회는 있지만 추가적인 학습 욕구는 크게 갖지 않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3) 참여 소외

학습 참여 소외 집단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지난 12개월 간 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인구이다.

이들은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학습 참여에 실패한 경우이다. 이들에게는 학습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시간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의 상황적 요인과 적절한

시간과 장소,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제도적 요인 등이다.

참여 소외 상태의 인구는 학습의지는 있으나 실제 학습 참여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학습 소외 상태에 있다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학습참여를 위한 상황적, 제도적 장애요인이 제거된다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들은 구조적인 제약에 의해 평생학습으로부터 배제된 집단으로 사회구조적 처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자발적 비참여

평생학습에 대한 자발적 비참여 상태는 지난 12개월 간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참여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었던 교육프로그램도 없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형식 및 비형식교육 참여와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도 학습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자발적 비참여 인구가 왜 학습에 대해 거리를 두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이를 개인적 장애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나,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나는 학습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 학습이 다른 일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다. 또한 Crowther(2000)는 평생교육 비참여자들은 학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나 성인교육에 대한 반감 또는 실망이 일부 성인들에게 교육참여에 대한 반감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무관심 혹은 적극적인 저항의 결과, 자발적 비참여 집단에 속하는 성인들은 평생학습과는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는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참여만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식 학습을 통한 주도적 학습에도 이들이 무관심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참여양상은 개인과 평생학습의 관계를 통해 전체 성인인구를 배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류체계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확장적 참여, 제한적 참여, 참여 소외, 자발적 비참여의 4가지 양상은 객관적인 학습참여 경험과 주관적인 학습참여의사를 교차시킴으로써 드러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성인인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성인들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분포와 그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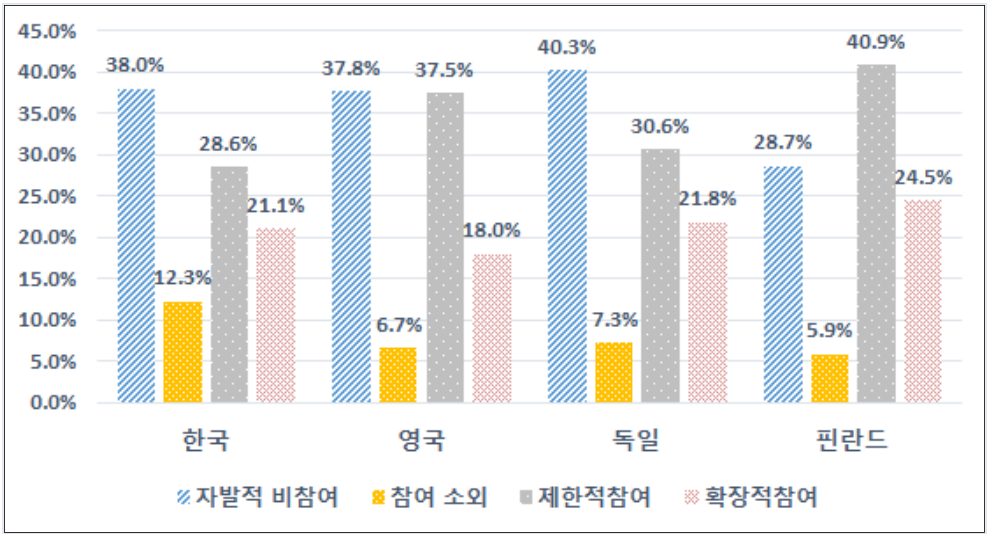
Ⅲ. 자발적 학습 비참여 성인 인구의 분포

1. 각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먼저 한국과 영국, 독일, 핀란드의 평생학습 참여양상을 확인하였다. 분석대상은 각국의 만 25세 - 만 65세에 해당하는 성인 표본이며, 평생학습참여 경험과 참여의사를 묻는 항목에 대해 유효한 응답을 한 표본수는 각각 한국은 5,583명, 영국 7,583명, 독일 4,315명, 핀란드 4,568명이었다.

<표 Ⅲ-1>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국가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제한적참여	확장적참여	합계
한국	사례수	2,121	702	1,566	1,194	5,583
	n	10,948,520	3,529,062	8,235,365	6,082,358	28,795,305
	비율	38.0%	12.3%	28.6%	21.1%	100%
	se	0.80	0.48	0.74	0.61	-
영국	사례수	3,104	521	2,705	1,253	7,583
	n	10,828,287	1,914,998	10,760,606	5,168,121	28,672,012
	비율	37.8%	6.7%	37.5%	18.0%	100%
	se	0.00	0.00	1.13	1.13	-
독일	사례수	1,629	316	1,366	1,004	4,315
	n	17,885,659	3,246,306	13,594,958	9,700,818	44,427,742
	비율	40.3%	7.3%	30.6%	21.8%	100.0%
	se	1.05	0.49	0.93	0.66	-
핀란드	사례수	1,283	264	1,882	1,139	4,568
	n	831,492	171,540	1,186,696	710,742	2,900,470
	비율	28.7%	5.9%	40.9%	24.5%	100%
	se	0.66	0.41	0.72	0.68	-



[그림 Ⅲ-1]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표 Ⅲ-1>과 [그림 Ⅲ-1]은 각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을 보여준다.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비중을 먼저 살펴보면, 독일이 4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이 37.8%, 한국 38.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핀란드는 28.7%만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인구였다.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성인 인구는 핀란드를 제외한 한국, 영국, 독일에서 평생학습참여양상 4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소외 인구는 학습참여 의사는 있었으나 참여 경험은 없는 성인들이다. 참여 소외 인구의 비중은 한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 성인의 12.3%가 학습참여 소외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독일의 7.3%, 영국 6.7%, 핀란드 5.9%가 참여 소외 인구였다. 한국의 소외 집단은 성인 전체의 12.3%로, 핀란드(5.9%)의 두 배를 상회한다. 한국에서는 학습 참여의지가 있음에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성인들이 유독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비참여 인구를 중심으로 볼 때, 학습비참여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무관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성인 인구가 국가별로 10% 이내 수준인 반면, 성인 인구의 약 40% 가량은 학습 참여 경험도 없고 학습 프로그램 참여에 의지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장적 학습참여 양상을 보이는 성인인구를 보면, 핀란드가 24.5%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독일은 21.8%, 한국은 21.1%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은 18.0%로 비교적 작은 인구 비중을 보였다. 확장적 학습참여 양상을 보이는 인구는 학습참여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 학습기회에 대한 참여의사를 보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고자 하는 인구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나머지 3개국과 비교했을 때, 평생학습 참여인구의 수준에 비하여 확장적 학습참여 양상을 보이는 성인인구의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참여 소외 인구도 많아서 한국은 비교국가들에 비해서 학습참여 의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확장적 학습참여 인구규모가 뚜렷하게 작을 뿐 아니라 참여 소외 인구도 4개국 중 가장 적게 나타남에 따라 학습에 대한 참여의사가 활발하지 않은 국가로 분석된다.

제한적 참여 양상을 보이는 인구의 규모는 평생학습 참여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추가적인 학습참여의사는 없지만 학습참여 경험은 있는 인구로서, 주어진 학습기회에서만 제한적으로 학습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집단의 규모는 핀란드에서 40.9%, 영국 37.5%, 독일 30.6%, 한국 28.6%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 집단에서 나머지 3개국과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집단의 규모가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학습참여의사가 있는 참여 소외 집단을 제한적 혹은 확장적 학습참여 상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지원체제가 미비함을 시사한다. 또한 제한적이나마 학습기회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때,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인구가 학습참여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비교

이 절에서는 한국, 핀란드, 영국, 독일에서 자발적 학습 비참여 상태에 있는 성인들이 사회구조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학습참여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양적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절의 분석에서는 자발적 학습비참여의 특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해 학습참여 인구를 동일범주로 분류하여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학습참여의 3가지 양상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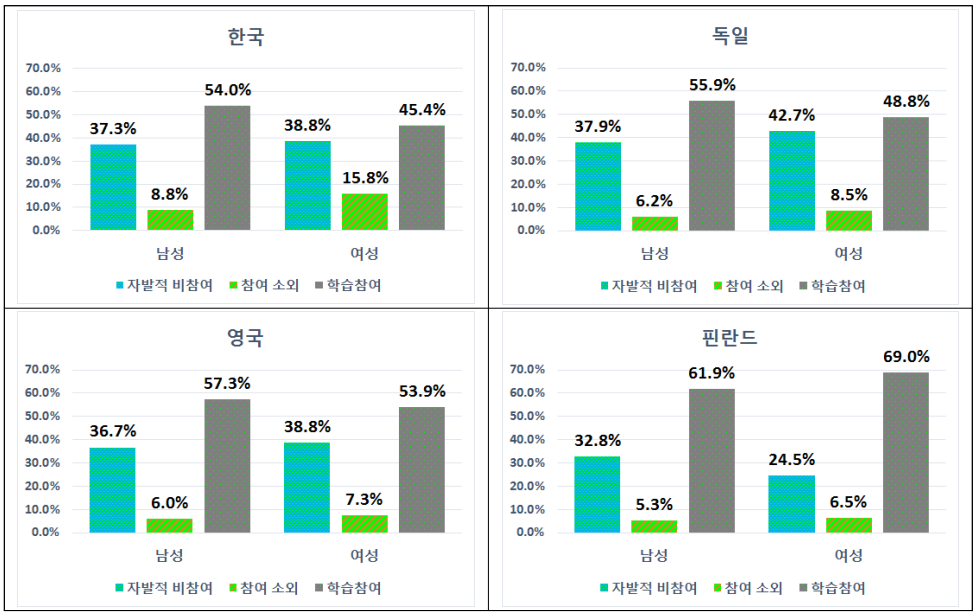
1) 성별

먼저 성별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과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표 Ⅲ-2>와 [그림 Ⅲ-3]은 성별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Ⅲ-2> 성별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비율

국가		학습비참여		학습 참여	합계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한국	남성	37.3%(1.17)	8.8%(0.61)	54.0%(1.13)	100.0%
	여성	38.8%(0.92)	15.8%(0.67)	45.4%(1.05)	100.0%
영국	남성	36.7%(1.31)	6.0%(0.49)	57.3%(1.30)	100.0%
	여성	38.8%(1.03)	7.3%(0.57)	53.9%(0.97)	100.0%
독일	남성	37.9%(1.26)	6.2%(0.60)	55.9%(1.22)	100.0%
	여성	42.7%(1.26)	8.5%(0.67)	48.8%(1.28)	100.0%
핀란드	남성	32.8%(0.96)	5.3%(0.54)	61.9%(0.96)	100.0%
	여성	24.5%(0.91)	6.5%(0.59)	69.0%(1.06)	100.0%

*괄호 안은 S.E.



[그림 Ⅲ-2] 성별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PIAAC의 조사결과 역시 남녀 간 학습참여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분포를 통해 남녀 간 학습참여의 차이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인구분포를 보면 95% 신뢰구간 내에서 한국과 영국은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일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핀란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핀란드는 학습 비참여집단 중 여성의 무관심 비율이 남성보다 뚜렷하게 낮았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무관심 비율이 비슷하지만 여성의 참여 소외 비율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를 보면, 한국에서 학습참여 인구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8.6%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발적 비참여 집단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다.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학습 참여

소외집단의 비율이다. 남성의 경우 참여 소외집단이 8.8%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15.8%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여성의 15.8%는 학습에 참여하고 싶어도 1년간 단 한 차례도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 가지는 학습참여 의지를 가진 여성 인구가 남성에 비해 더 많다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로 여성이 외부적 장애 요인에 의해 학습 참여를 제한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핀란드의 여성의 자발적 비참여 비율이 주목할 만하다. 핀란드 성인 여성 인구의 무려 69%가 학습참여 경험이 있는 동시에, 자발적 비참여 인구는 단지 24.5%에 불과하다. 여성인구 중 자발적 비참여의 비중이 독일에서 42.7%, 영국 38.8%, 한국 38.8%를 기록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 성인여성 집단은 남성인구에 비해서도 뚜렷하게 높은 학습참여율과 낮은 자발적 비참여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4개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을 살펴볼 때, 성별에 따라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참여 소외 상태의 인구 비중에서 여성이 대체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평생학습 참여에 대해 남성에 비해 비교적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외부적 장애요인에 의해 참여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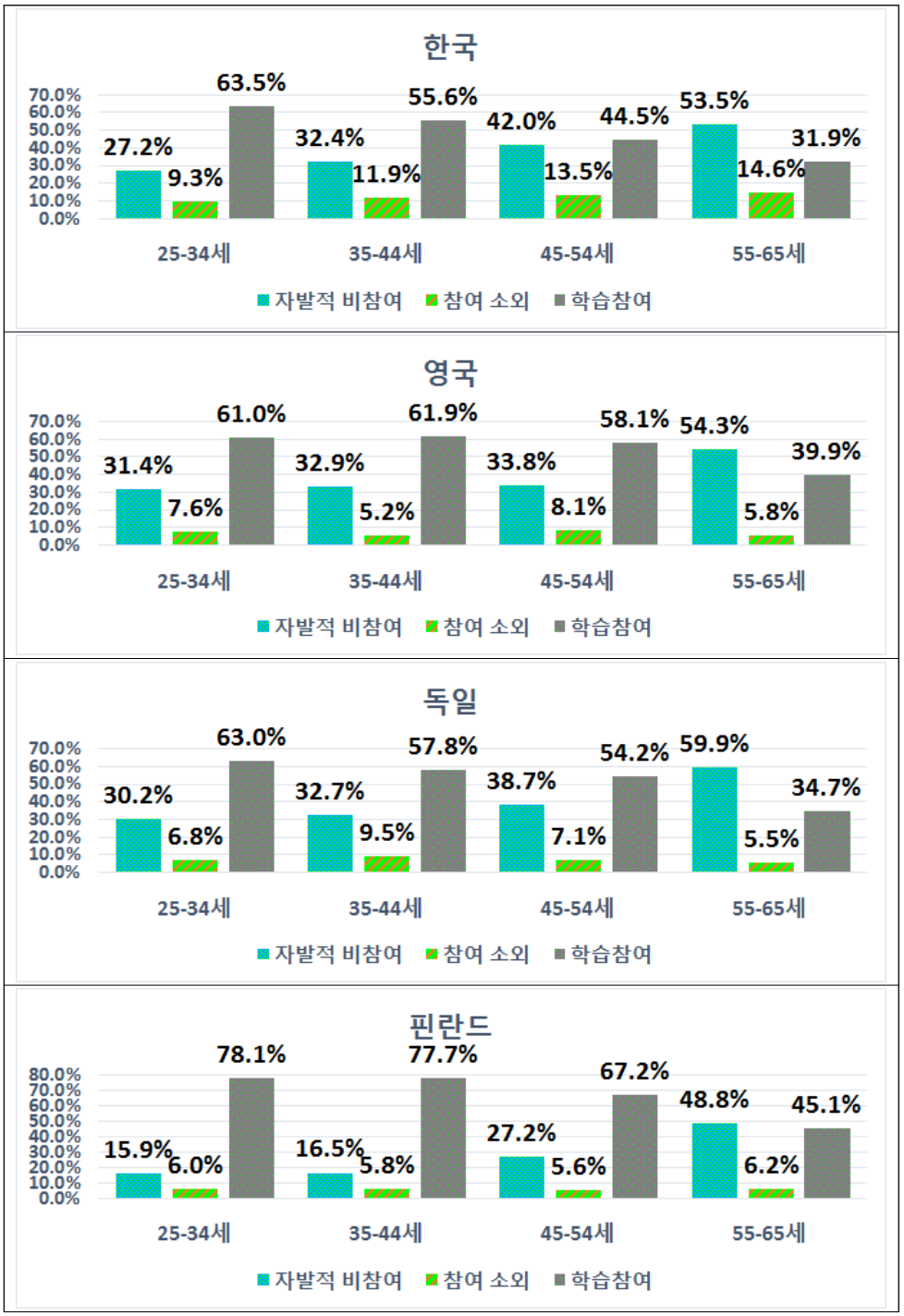
2) 연령에 따른 평생교육참여양상 비교

한국과 핀란드, 독일, 미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를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집단은 10년을 한 단위로 하여 만 25-34세, 만 35-44세, 만 45-54세, 만 55-65세로 구분하였다. <표 Ⅲ-3>과 [그림 Ⅲ-3]은 연령대별로 자발적 비참여와 참여 소외 인구의 비중을 제시해주고 있다.

<표 Ⅲ-3> 연령집단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국가	구분	학습비참여		학습 참여	합계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한국	25-34세	27.2%(1.46)	9.3%(0.93)	63.5%(1.40)	100.0%
	35-44세	32.4%(1.43)	11.9%(0.85)	55.6%(1.62)	100.0%
	45-54세	42.0%(1.46)	13.5%(0.83)	44.5%(1.44)	100.0%
	55-65세	53.5%(1.74)	14.6%(1.05)	31.9%(1.40)	100.0%
영국	25-34세	31.4%(1.77)	7.6%(0.85)	61.0%(1.63)	100.0%
	35-44세	32.9%(1.40)	5.2%(0.68)	61.9%(1.57)	100.0%
	45-54세	33.8%(1.38)	8.1%(0.80)	58.1%(1.37)	100.0%
	55-65세	54.3(1.49)	5.8%(0.71)	39.9%(1.35)	100.0%
독일	25-34세	30.2%(1.61)	6.8%(0.93)	63.0%(1.71)	100.0%
	35-44세	32.7%(1.74)	9.5%(0.99)	57.8%(1.97)	100.0%
	45-54세	38.7%(1.75)	7.1%(0.94)	54.2%(1.76)	100.0%
	55-65세	59.9%(1.66)	5.5%(0.79)	34.7%(1.42)	100.0%
핀란드	25-34세	15.9%(1.07)	6.0%(0.77)	78.1%(1.22)	100.0%
	35-44세	16.5%(1.21)	5.8%(0.80)	77.7%(1.22)	100.0%
	45-54세	27.2%(1.26)	5.6%(0.72)	67.2%(1.38)	100.0%
	55-65세	48.8%(1.41)	6.2%(0.66)	45.1%(1.36)	100.0%

*괄호 안은 S.E.



[그림 Ⅲ-3] 연령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생학습참여율은 하락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학습참여 저조 현상을 설명할 때, 학습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지 혹은 학습에 대해 자발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기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Ⅲ-3>과 [그림 Ⅲ-3]에서 4개국의 연령대별 자발적 비참여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각 국에서 학습 참여 소외 상태의 성인 인구 비중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인구 비중은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참여에 장애요인이 늘어난다기보다는 학습참여 자체에 관심이 없어진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55-65세 인구의 경우, 4개국 모두 뚜렷하게 자발적 비참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령집단을 놓고 볼 때, 한국의 53.5%, 영국의 54.3%, 독일의 59.9%가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있었다. 이 3개국을 비교할 때, 고령층에서 한국의 학습참여율은 31.9%로 가장 낮은 동시에 자발적 비참여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대신 고령층에서 참여 소외 비율의 비중이 14.6%를 차지하여 한국의 고령층이 학습 참여에 실패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높은 참여 소외 비율은 우리나라의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만 25-55세 사이 인구집단의 경우,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비중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증가 속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은 25-34세 인구집단에서 27.2%에 불과한 자발적 비참여 집단이 45-54세가 되면 이미 42.0%를 차지한다. 이 연령대에 자발적 비참여 인구와 학습참여인구는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독일과 영국, 핀란드에서는 45-55세 인구 집단에서도 학습참여인구가 자발적 비참여 인구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중년층의 자발적 비참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할 대상은 참여 소외집단이다. 참여 소외집단은 학습에

참여할 의지는 있었으나 상황적, 제도적 장애요인에 의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인구이다. 한국에서 25-34세 집단의 9.3%, 35-44세 집단의 11.9%, 45-54세 집단의 13.5%, 55-65세 집단의 14.6%가 참여 소외집단에 속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무관심층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지만, 참여 소외집단의 비중도 소폭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45세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의 약 14%는 학습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음에도 이를 실현해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학습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학습참여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여 소외집단은 한국의 사회구조적 한계가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이다. 한국은 소외집단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클 뿐 아니라, 특히 나이가 많은 연령대에서 소외집단의 비중이 많다. 한국에서 학습에 참여할 의사는 있었지만 이를 1년 간 실현하지 못한 인구의 비중이 전 연령에 걸쳐 12-14%로 나타난다는 점은 상황적,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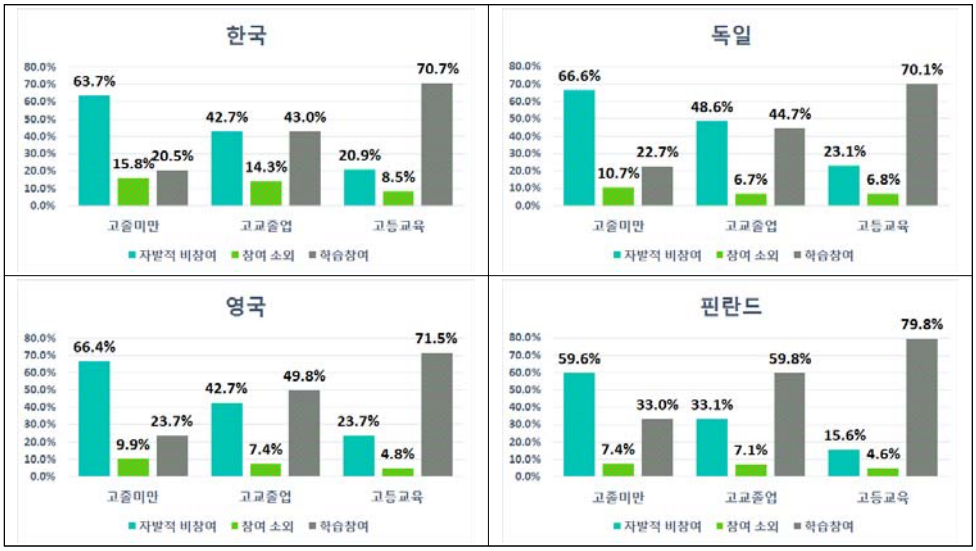
3) 최종학력

학력은 평생학습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최종학력을 고졸 미만(ISCED 3 미만), 고졸(ISCED 3), 고등교육(ISCED 4, 5B, 5A, 6)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에는 ISCED 수준4에 해당하는 중등후 비고등교육도 포함하여 군집화하였다.

<표 Ⅲ-4> 학력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국가	구분	학습비참여		학습 참여	합계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한국	고졸미만	63.7%(1.72)	15.8%(1.24)	20.5%(1.27)	100.0%
	고교졸업	42.7%(1.27)	14.3%(0.81)	43.0%(1.31)	100.0%
	고등교육	20.9%(0.95)	8.5%(0.54)	70.7%(1.15)	100.0%
영국	고졸미만	66.4%(1.92)	9.9%(1.47)	23.7%(1.85)	100.0%
	고교졸업	42.7%(1.18)	7.4%(0.60)	49.8%(1.32)	100.0%
	고등교육	23.7%(1.21)	4.8%(0.51)	71.5%(1.25)	100.0%
독일	고졸미만	66.6%(3.09)	10.7%(1.67)	22.7%(2.68)	100.0%
	고교졸업	48.6%(1.48)	6.7%(0.68)	44.7%(1.45)	100.0%
	고등교육	23.1%(1.21)	6.8%(0.66)	70.1%(1.23)	100.0%
핀란드	고졸미만	59.6%(2.10)	7.4%(1.18)	33.0%(2.07)	100.0%
	고교졸업	33.1%(1.10)	7.1%(0.69)	59.8%(1.08)	100.0%
	고등교육	15.6%(0.79)	4.6%(0.46)	79.8%(0.86)	100.0%

*괄호 안은 S.E.



[그림 Ⅲ-4] 각국의 최종학력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표 Ⅲ-4>와 [그림 Ⅲ-4]를 보면, 최종학력에 따라 자발적 비참여인구의 비중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고졸 미만 학력자의 63.7%, 고졸 학력자의 42.7%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저학력 집단은 학습참여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학습기회를 획득하는 데에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고졸 미만 학력자의 15.8%, 고졸 학력자의 14.3%는 학습참여에 관심은 있었으나 상황적,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참여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에서 고등교육 이수자의 70.7%가 평생학습참여 인구인 반면, 고졸미만 집단의 63.7%는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수준은 자발적 비참여 비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학력에 따른 학습참여율의 차이는 4개국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졸미만 학력 인구와 고등교육 이상 학력 인구의 자발적 비참여 비율의 차이는 나라마다 최소 42.7%(독일)에서 최대 44.0%(핀란드)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교육의 결과가 성인기의 평생학습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저조한 성취, 직업계 훈련 프로그램으로의 분리, 진학 기회의 박탈 등은 한 개인의 일생에서 학습참여를 초기교육으로 종결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학력 성인 인구의 높은 자발적 비참여 비율은 초기교육에서의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가 평생에 걸쳐 학습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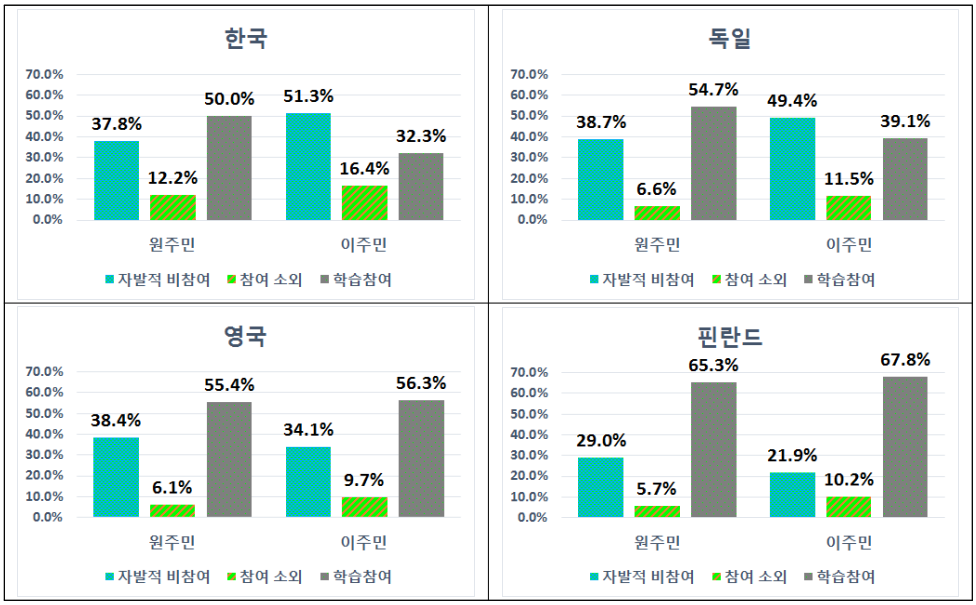
4) 이주민 여부

이주민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계층이다. PIAAC 조사에서는 태어난 나라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이주민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유효한 응답자 총 5,583명 중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1.4%인 78명이었다.

<표 Ⅲ-5> 이주민 여부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표

국가	구분	학습비참여		학습 참여	합계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한국	원주민	37.8%(0.82)	12.2%(0.49)	50.0%(0.84)	100.0%
	이주민	51.3%(5.94)	16.4%(4.62)	32.3%(5.70)	100.0%
영국	원주민	38.4%(0.87)	6.1%(0.41)	55.4%(0.87)	100.0%
	이주민	34.1%(2.27)	9.7%(1.33)	56.3%(2.28)	100.0%
독일	원주민	38.7%(1.16)	6.6%(0.49)	54.7%(1.17)	100.0%
	이주민	49.4%(2.35)	11.5%(1.57)	39.1%(2.26)	100.0%
핀란드	원주민	29.0%(0.67)	5.7%(0.40)	65.3%(0.68)	100.0%
	이주민	21.9%(3.30)	10.2%(2.32)	67.8%(3.61)	100.0%

*괄호 안은 S.E.



[그림 Ⅲ-5] 이주민 여부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이주민의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과 독일에서 이주민의 자발적 비참여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한국은 이주민의 무관심 비율이 51.3%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독일 역시 이주민의 49.4%가 학습참여경험도 없고 참여의지 역시 보이지 않았다. 이는 평생교육참여가 곧 사회적 참여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영국과 핀란드는 이주민과 원주민의 참여 양상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4개국 공히 이주민의 참여 소외 비율이 원주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이다. 이는 이주민들이 학습기회를 외부적 제약 조건에 의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주민은 대표적인 사회적 주변 계층이므로, 이들의 학습 비참여율과 학습 소외율은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의 기능이 얼마나 원활히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3.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학습참여양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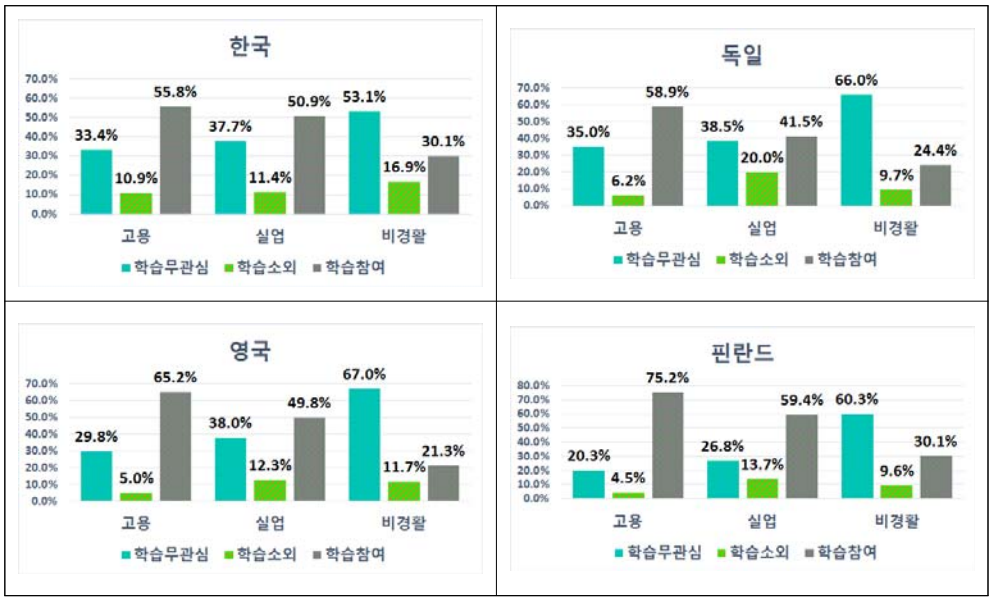
1) 고용상황

고용상황은 평생교육참여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득활동은 활발한 사회활동과 연관되고 직업과 관련한 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장시간의 노동참여는 학습에 대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래의 <표 Ⅲ-6>과 [그림 Ⅲ-6]는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Ⅲ-6> 고용상황에 따른 각 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 표

국가	구분	학습비참여		학습 참여	합계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한국	고용	33.4%(0.97)	10.9%(0.50)	55.8%(0.96)	100.0%
	실업	37.7%(4.09)	11.4%(2.60)	50.9%(4.65)	100.0%
	비경활	53.1%(1.58)	16.9%(1.14)	30.1%(1.42)	100.0%
영국	고용	29.8%(1.04)	5.0%(0.43)	65.2%(1.06)	100.0%
	실업	38.0%(3.88)	12.3%(2.25)	49.8%(4.26)	100.0%
	비경활	67.0%(1.62)	11.7%(1.25)	21.3%(1.41)	100.0%
독일	고용	35.0%(1.08)	6.2%(0.50)	58.9%(1.08)	100.0%
	실업	38.5%(4.63)	20.0%(3.23)	41.5%(4.46)	100.0%
	비경활	66.0%(2.11)	9.7%(1.41)	24.4%(1.89)	100.0%
핀란드	고용	20.3%(0.69)	4.5%(0.34)	75.2%(0.71)	100.0%
	실업	26.8%(3.34)	13.7%(2.62)	59.4%(3.54)	100.0%
	비경활	60.3%(1.66)	9.6%(1.09)	30.1%(1.62)	100.0%

*괄호 안은 S.E.



[그림 Ⅲ-6] 고용상태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고용상태에 따라서도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비율이 일관되게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상태의 인구는 4개국 공통으로 학습참여 비중이 높고 자발적 비참여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자발적 비참여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실업 인구와 달리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집단의 자발적 비참여 비율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경제활동은 물론 학습활동에도 무관심한 인구의 비중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집단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NEET 분석에서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에서 국가 간 공통적인 특징 중 한 가지는 실업 및 비경활 인구에 비해 고용 상태의 성인 인구의 참여 소외 비중은 뚜렷하게 작다는 것이다. 고용 상태의 조건이 학습참여를 더 용이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가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도 긴밀히 연관된다는 증거인 동시에, 최근 직장 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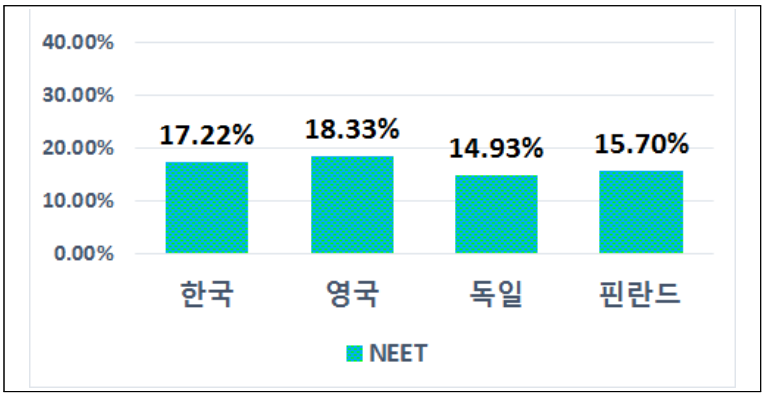
의 학습 기회가 증가한 것과도 관련된다. 학습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 기회를 획득하거나, 의무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 인구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높은 참여 소외 비율은 정책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과 핀란드는 실업 인구의 참여 소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실업 인구의 20.0%가 참여 소외 인구여서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학습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16.9%가 참여 소외 상태에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경활 인구는 4개국 모두에서 무관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이 학습참여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사로 인한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구직활동을 연기한 취업준비생의 학습 기회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 NEET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ning)는 '취업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자'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최근 실업률의 추가 지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OECD 및 EU에서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박나연, 2014).

NEET에 대한 기준은 연구마다 일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PIAAC조사에서는 '본 조사시점에 실업상태이며 지난 조사 이전 12개월간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을 NEET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12개월 내 취업했거나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함'으로 응답한 성인은 NEET가 아니며, '현재 실업상태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 NEET로 정의한다. [그림 Ⅲ-7]은 국가별 NEET인구의 비중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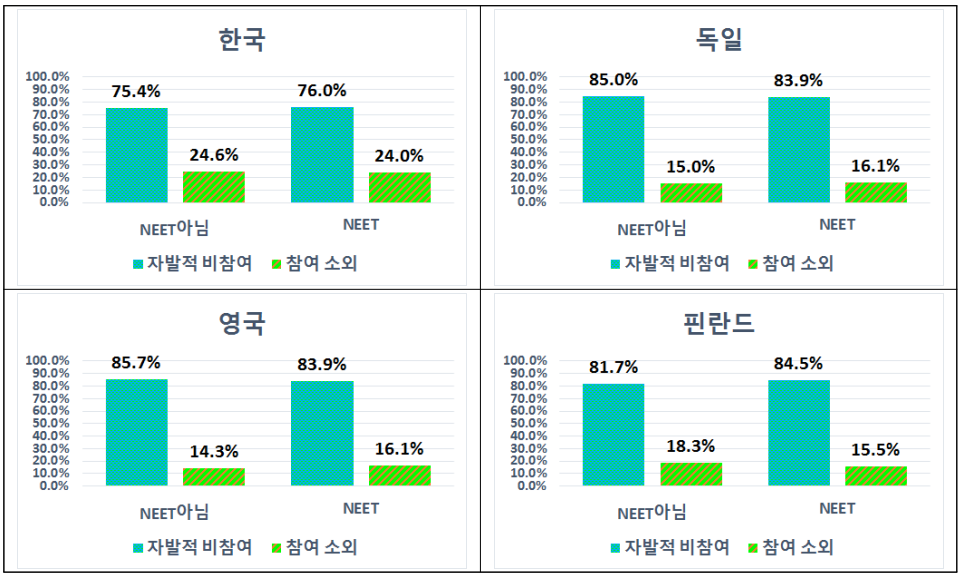
[그림 Ⅲ-7] 국가별 NEET 비율

국가별 NEET인구 규모는 한국에서 17.22%, 영국 18.33%, 독일 14.93%, 핀란드 15.70%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지난 1년간 학습참여 경험도 없는 인구이다. <표 Ⅲ-7>과 [그림 Ⅲ-8]은 자발적 비참여와 참여 소외 인구의 분포를 NEET여부에 따라 보여준다.

<표 Ⅲ-7> NEET여부에 따른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국가	구분	학습비참여		합계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한국	NEET아님	75.4%(1.12)	24.6%(1.12)	100.0%
	NEET	76.0%(1.49)	24.0%(1.49)	100.0%
영국	NEET아님	85.7%(1.21)	14.3%(1.21)	100.0%
	NEET	83.9%(1.55)	16.1%(1.55)	100.0%
독일	NEET아님	85.0%(1.18)	15.0%(1.18)	100.0%
	NEET	83.9%(1.77)	16.1%(1.77)	100.0%
핀란드	NEET아님	81.7%(1.32)	18.3%(1.32)	100.0%
	NEET	84.5%(1.50)	15.5%(1.50)	100.0%

*괄호 안은 S.E.



[그림 Ⅲ-8] NEET여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먼저 NEET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구분할 때, 자발적 비참여와 참여 소외의 비율은 오차범위 안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NEET이기 때문에 학습에 더 무관심하거나 혹은 더 참여에 제약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NEET인구 중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인구 비중을 보면 영국, 독일, 핀란드에서 모두 약 83 ~ 85%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NEET 상태에 있는 이들의 8할 이상이 학습참여 자체에 관심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활동과 학습활동 모두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이들 인구의 비중은 각 국에서 중요한 정책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중심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17.2%가 NEET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평생학습참여양상을 살펴보면 자발적 비참여 집단이 75.6%, 참여 소외집단이 24.4%였다. 표본 전체를 모집단으로 할 경우, 자발적 비참여 NEET는 전체의 13.1%였으며, 참여 소외 NEET는 전체의 4.1%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성인의 13.1%는 지난 12개월 간 교육이나 노동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도 보이지 않은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NEET 집단의 24.0%는 학습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며, 이들은 구조적인 장애요인에 의해 평생학습 참여에서 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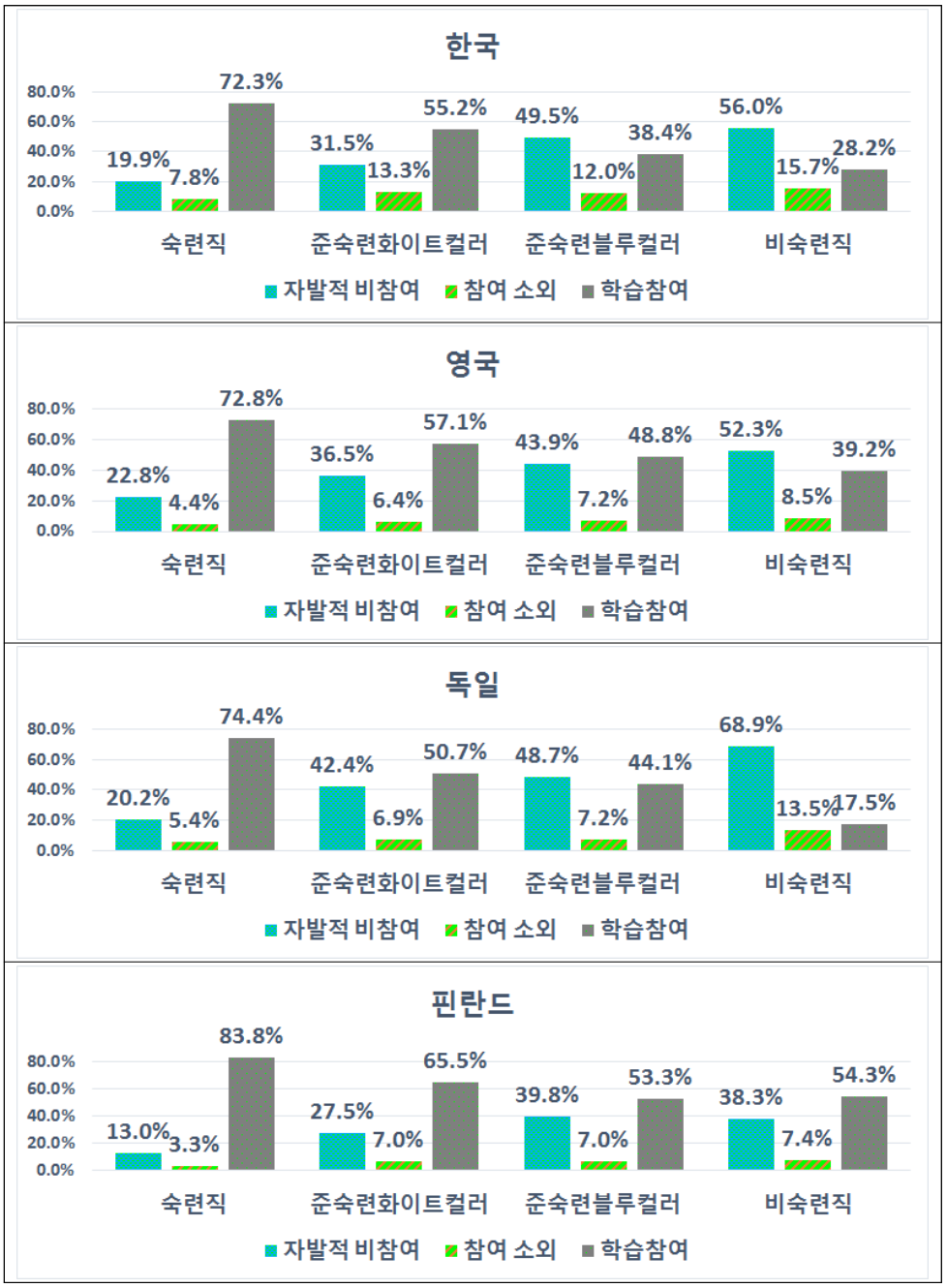
3) 직종

PIAAC은 응답자의 직업군을 조사하여 이를 숙련직과 준숙련화이트컬러, 준숙련 블루컬러, 비숙련직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해당 직종이 어떠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가에 따라 분류한 4가지 직무 구분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은 <표 Ⅲ-8>과 [그림 Ⅲ-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Ⅲ-8> 국가별 직종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국가	구분	학습비참여		학습 참여	합계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한국	숙련직	19.9%(1.14)	7.8%(0.75)	72.3%(1.30)	100.0%
	준숙련화이트컬러	31.5%(1.29)	13.3%(0.82)	55.2%(1.49)	100.0%
	준숙련블루컬러	49.5%(1.97)	12.0%(1.02)	38.4%(1.83)	100.0%
	비숙련직	56.0%(2.62)	15.7%(1.84)	28.2%(2.45)	100.0%
영국	숙련직	22.8%(1.25)	4.4%(0.53)	72.8%(1.30)	100.0%
	준숙련화이트컬러	36.5%(1.52)	6.4%(0.76)	57.1%(1.60)	100.0%
	준숙련블루컬러	43.9%(2.39)	7.2%(1.12)	48.8%(2.35)	100.0%
	비숙련직	52.3%(3.04)	8.5%(1.80)	39.2%(2.85)	100.0%
독일	숙련직	20.2%(1.37)	5.4%(0.60)	74.4%(1.33)	100.0%
	준숙련화이트컬러	42.4%(1.92)	6.9%(0.89)	50.7%(1.89)	100.0%
	준숙련블루컬러	48.7%(1.95)	7.2%(0.97)	44.1%(1.86)	100.0%
	비숙련직	68.9%(2.91)	13.5%(2.14)	17.5%(2.34)	100.0%
핀란드	숙련직	13.0%(0.76)	3.3%(0.42)	83.8%(0.86)	100.0%
	준숙련화이트컬러	27.5%(1.37)	7.0%(0.85)	65.5%(1.51)	100.0%
	준숙련블루컬러	39.8%(1.41)	7.0%(0.87)	53.3%(1.42)	100.0%
	비숙련직	38.3%(3.35)	7.4%(1.83)	54.3%(3.46)	100.0%

*괄호 안은 S.E.



[그림 Ⅲ-9] 직종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의 숙련도에 따라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인구가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비숙련직의 자발적 비참여 비율은 핀란드에서만 38.3%에 그칠 뿐, 한국에서는 56.0%, 영국 52.3%, 독일 68.9%를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를 제외하고서는 준숙련 블루칼라 직종에서도 무관심 비중이 50%에 가깝게 나타난다. 이처럼 준숙련 블루컬러와 비숙련직에 종사하는 인구는 학습참여 기회도 적을 뿐 아니라, 학습 자체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 숙련직과 준숙련화이트컬러 직종 종사자에게는 학습참여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한국, 영국, 독일에서 숙련직의 학습 참여율은 72~74%에 이르며, 핀란드에서는 무려 83.8%가 학습참여 경험이 있었다. 숙련직과 화이트컬러 직종의 인구는 학습참여에서 무관심한 비율도 20% 내외에 그쳤고, 학습 소외 비율 역시 매우 작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숙련직 종사자 집단에서도 참여 소외 비율이 7.8%를 기록하여 독일, 영국, 핀란드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타 3개국에서는 준숙련 블루컬러 직종 종사자의 참여 소외 비중이 7% 수준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학습 참여에 실패하는 인구가 숙련직종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과도한 노동시간이 학습 참여를 저해시키는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종별 차이를 살펴볼 때 분명한 점은 숙련직과 화이트컬러 직종 종사자에게 학습 참여가 매우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 블루컬러 및 비숙련직 종사자들에게 학습 참여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이 여전히 화이트컬러의 일이라는 것이다. 전문화되고 최신의 지식이 요청되는 직무에서는 지속적인 학습참여가 유발되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에서는 일과 학습이 유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전체를 통해 볼 때, 숙련화된 화이트컬러 직장인은 많은 학습참여 기회는 물론, 지속적인 학습참여 기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비숙련직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학습참여 기회도 제공받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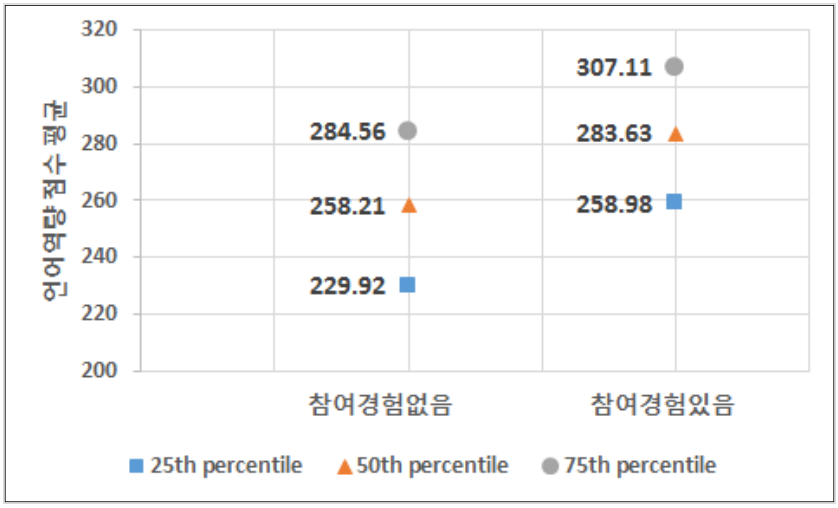
할뿐더러 학습자체에도 큰 욕구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언어능력과 평생학습참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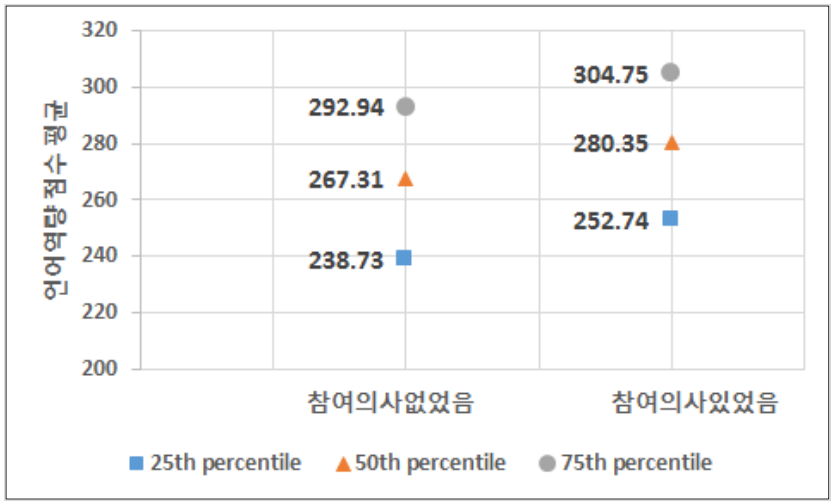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평생학습참여양상과 PIAAC에서 측정된 언어능력(Literacy)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PIAAC에서는 기초적인 읽기 능력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언어적 이해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순하고 일상적인 텍스트부터 여러 정보와 의견이 복합된 텍스트까지 단계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OECD, 2013: 59). 언어능력의 수준은 높은 단계부터 수준5에서 수준1 및 수준1미만으로 범주화된다. 아래에서는 평생학습참여양상을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언어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언어능력과 학습참여의사와의 관계

PIAAC데이터를 통해 평생학습참여의 역량효과를 분석한 최윤정(2015)에 따르면 평생학습참여는 참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그림 Ⅲ-10]는 한국에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각 집단의 언어능력을 25%, 50%, 75% 지점에서 표시한 그래프이다. 평생학습에 참여한 성인들은 비참여 성인들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높은 언어능력을 나타냈다. 학습 비참여 집단의 중위값은 258.21점인 반면, 학습 참여집단의 중위값은 283.63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Ⅲ-10] 학습참여 경험에 따른 언어능력 점수 분포



[그림 Ⅲ-11] 학습참여의사 여부에 따른 언어능력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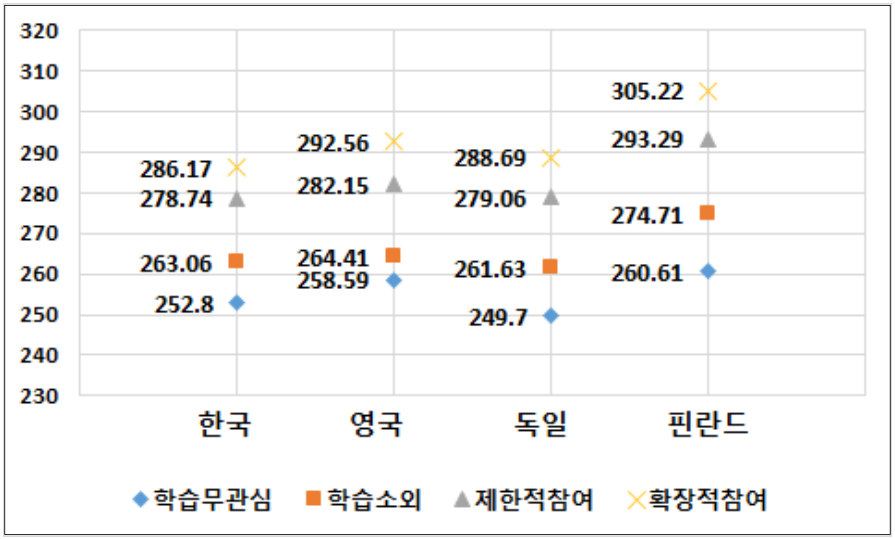
[그림 Ⅲ-11]은 한국에서 참여의사 여부에 따른 언어능력 점수의 차이를 보여준다. 참여의사가 없었던 집단의 중위값은 267.31점인 반면, 참여의사가 있었던 집단은 280.3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역량이 높은 성인들이 학습에 대한 참여 의사 또한 더 많이 보여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발적 비참여와 언어능력

언어능력 수준에 따라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별 평생학습참여양상의 언어능력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Ⅲ-9>는 국가별 언어능력 평균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Ⅲ-9> 국가별 언어능력 평균점수 비교

국가	평생학습 참여양상	사례수	비율	s.e.	언어능력 평균점수	s.e.
한국	자발적 비참여	2,121.00	38.0%	0.80	252.80	1.15
	참여 소외	702.00	12.3%	0.48	263.06	1.98
	제한적참여	1,566.00	28.6%	0.74	278.74	1.14
	확장적참여	1,194.00	21.1%	0.61	286.17	1.40
국가	평생학습 참여양상	사례수	비율	s.e.	언어능력 평균점수	s.e.
영국	자발적 비참여	3,104.00	37.8%	0.00	258.59	1.41
	참여 소외	521.00	6.7%	0.00	264.41	3.64
	제한적참여	2,705.00	37.5%	1.13	282.15	1.48
	확장적참여	1,253.00	18.0%	1.13	292.56	2.07
국가	평생학습 참여양상	사례수	비율	s.e.	언어능력 평균점수	s.e.
독일	자발적 비참여	1,629.00	40.3%	1.05	249.70	1.52
	참여 소외	316.00	7.3%	0.49	261.63	3.33
	제한적참여	1,366.00	30.6%	0.93	279.06	1.50
	확장적참여	1,004.00	21.8%	0.66	288.69	1.68
국가	평생학습 참여양상	사례수	비율	s.e.	언어능력 평균점수	s.e.
핀란드	자발적 비참여	1,283.00	28.7%	0.66	260.61	1.65
	참여 소외	264.00	5.9%	0.41	274.71	3.43
	제한적참여	1,882.00	40.9%	0.72	293.29	1.29
	확장적참여	1,139.00	24.5%	0.68	305.22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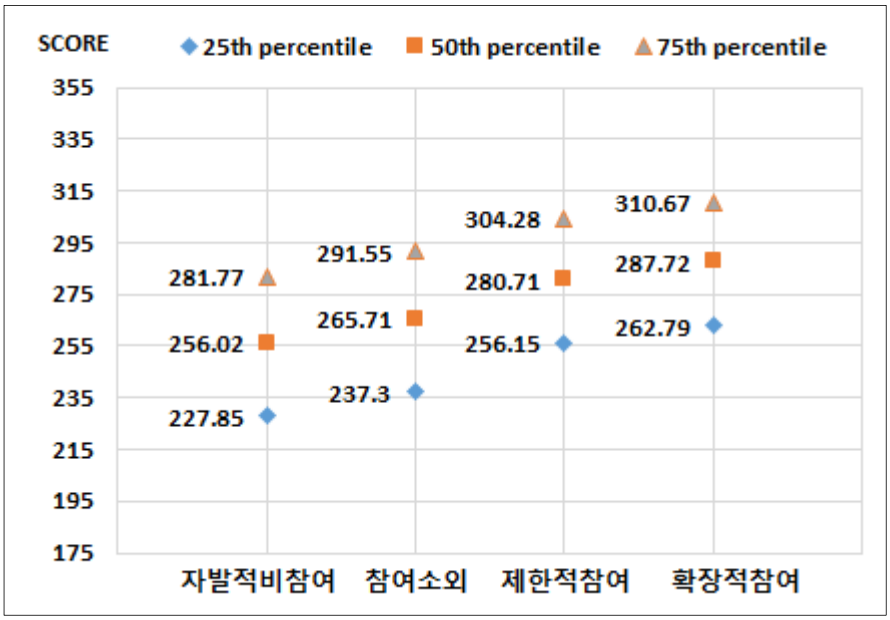


[그림 Ⅲ-12]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국가별 언어능력 평균점수 분포

<표 Ⅲ-9>와 [그림 Ⅲ-12]에서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언어능력평균점수를 보면, 4개국 모두 일관되게 자발적 비참여 집단이 가장 점수가 낮고, 확장적 학습참여 인구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언어능력 점수는 확장적 참여인구에 비해 국가별로 30~40점 가량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참여 소외 집단에 비하여도 무관심 집단의 언어능력은 뚜렷하게 저조했다. 두 집단 모두 학습참여 경험이 없었으나 학습참여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언어능력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학습참여양상의 구분이 언어능력 점수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핀란드는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라 언어능력 점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점수 수준이 4개국 중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발적 비참여 집단도 독일의 참여 소외집단과 비슷한 언어능력 점수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참여양상 집단 간 언어능력 편차가 비교적 작은 국가이다. 영국은 자발적 비참여 집단의 비율이 약 41%에 이르지만 이들의 언어능력 수준은 비교적 저조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독일은 전반적인 언어점수가 비교국에 비하여 낮은 편인데, 특히 자발적 비참여 집단의 언어능력 점수가 두드러지게 낮게 형성되고 있다. 역량의 격차와 평생학습의 관계에 대해 국가적인 논의가 요청되는 지점이다.



[그림 Ⅲ-13]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언어능력 점수 분포(한국)

한국은 참여양상에 따른 언어능력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점수가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 Ⅲ-13]은 한국에서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언어능력 점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할 때, 무관심 집단은 256.02점, 소외집단은 265.71점, 제한적 참여집단 280.71점, 확장적 참여집단 287.72점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언어능력 수준에는 평생학습참여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참여의사 역시 모종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관심이 무형식 학습 및 일상에서의 스킬 활용 등에서 보다 활발한 활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자발적 비참여 현상의 구조적 특징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자발적 비참여 현상의 구조적 성격에 대하여 논한다. 3장의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분포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긴밀히 관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을 통해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성인 인구가 드러내는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자발적 비참여 인구분포의 구조적 특징

1) 비대한 자발적 비참여 인구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있는 성인인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의 규모 자체다. 앞의 분석을 상기하면 전체 성인인구 중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중은 한국에서 38%, 영국 37.8%, 독일 40.3%, 핀란드 28.7%에 달한다. 평생학습 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에서 30%를 밑돌 뿐, 그 외의 3개국에서는 약 40%의 성인이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인 전체 인구의 약 40%는 지난 1년간 형식, 비형식학습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기를 희망했던 학습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이다.

이를 추가적인 학습 참여의사가 있었던 인구로 한정시킬 경우, 학습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감소한다. 지난 1년간 참여를 희망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인구는 참여 소외 집단과 확장적 학습참여집단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합은 한국에서 33.4%, 핀란드 30.4%, 독일 29.1%, 영국에서 24.7%에 불과하다. 이들은 추가적인 학습참여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습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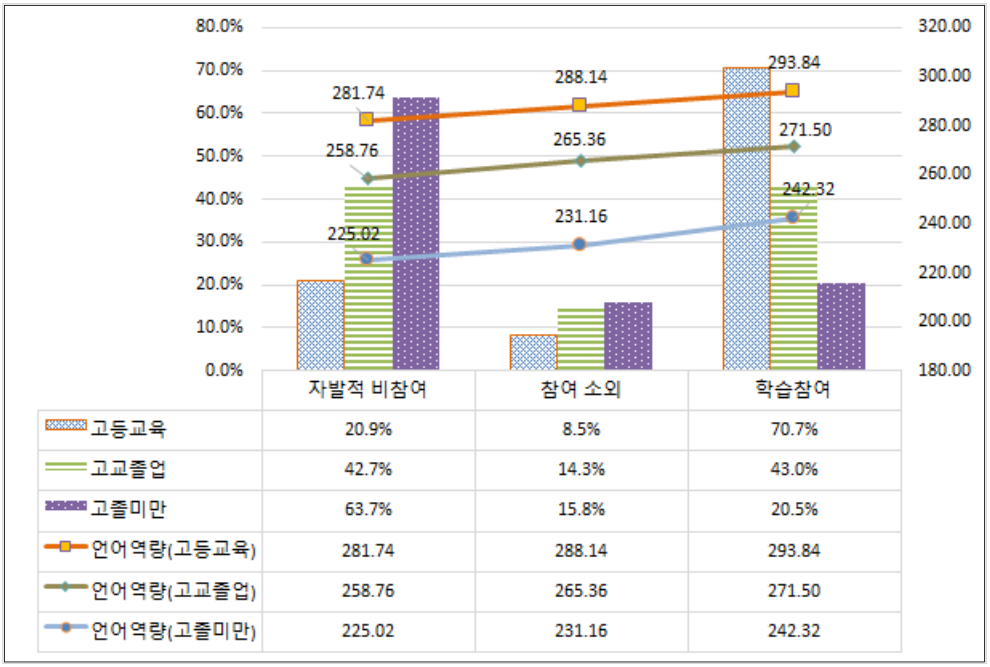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발적 비참여 인구를 포함한 제한적 학습참여인구는 추가적인 학습에 대해 필요성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습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지속적이고 확정적으로 학습 기회를 찾지 않는 인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25세 이상 성인인구 중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찾고자 관심을 기울이는 인구는 약 3할에 그치며, 나머지 약 7할의 성인인구는 학습참여에 지속적인 욕구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정책적 과제로 추진하는 각 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40%에 달하는 자발적 비참여 비율은 실망스러운 수준일 수 있다. 이들 성인인구는 학습에 참여할 기회도, 학습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는 의미로, 평생학습이 보편화, 일상화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하게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마련하고 여러 학습기관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4할에 이르는 자발적 비참여 인구는 참여 기회가 제약되기보다 참여 자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저역량·저학력과 자발적 비참여

자발적 비참여 상태는 저역량 인구와 저학력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낮은 학력은 저조한 역량과 관련되는 동시에, 학습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림 Ⅳ-1]은 한국에서 학력별로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분포를 보여준다. 여기서 고졸미만 학력자의 63.7%, 고교졸업 학력자의 42.7%가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들 중에서는 단 20.6%만이 자발적 비참여 상태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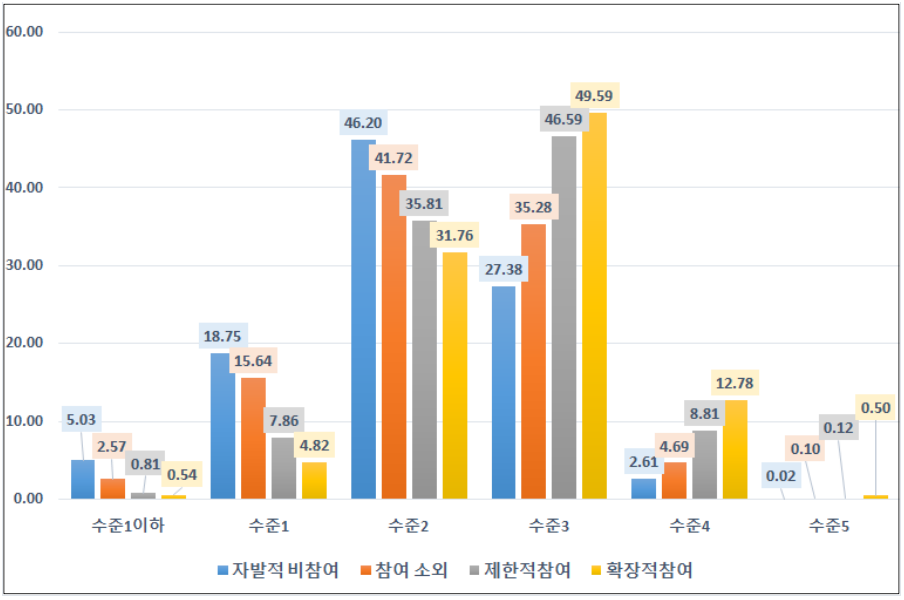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학습참여
고등교육	20.9%	8.5%	70.7%
고교졸업	42.7%	14.3%	43.0%
고졸미만	63.7%	15.8%	20.5%
언어역량(고등교육)	281.74	288.14	293.84
언어역량(고교졸업)	258.76	265.36	271.50
언어역량(고졸미만)	225.02	231.16	242.32

[그림 Ⅳ-1] 한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학력 및 언어능력 분포

또한 [그림 Ⅳ-1]에서 최종학력과 평생학습참여양상 및 기초역량 점수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언어능력 점수는 최종학력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동일 학력 이내에서는 자발적 비참여, 참여 소외, 학습참여 순으로 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 학습참여양상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학습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70.7%는 학습참여 인구이며 이들의 언어능력 평균은 293.84점에 달하는 고역량 집단이다. 반면 고졸 미만 학력자의 63.7%는 자발적인 학습 비참여 인구이고, 언어능력 평균은 225.02점에 불과하다. 즉, 초기교육이 잘 완성되어 있는 고역량의 인구는 성인기에도 꾸준히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초기교육이 불충분한 저역량의 인구는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학습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인기의 형식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 최종학력은 초기교육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초기교육 단계에서 학습에 실패하거나 진학에 좌절한 사람들의 경우, 저학력 상태가 성인기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학력 성인들은 초기교육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학업성취에서의 실패나 학교교육에서의 소외 경험 등으로 학습과 거리를 두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그림 Ⅳ-2]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언어능력 수준별 분포(한국)

초기교육의 미비는 저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저역량은 학습참여와도 직결된다.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낮은 언어능력은 초기교육 단계에서부터 지속된 학습실패의 결과인 동시에, 성인기에도 추가적인 학습기회를 통해 역량을 상승시킬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림 Ⅳ-2]은 한국의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언어능력 수준별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참여양상을 각각 100으로 보았을 때, 참여양상별로 언어능력 수준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의 분포가 드러내는 특징은 수준2와 수준3을 경계로 학습참여양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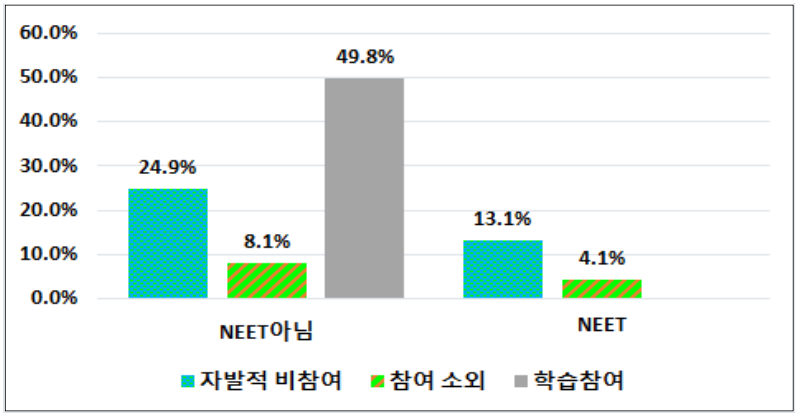
정반대의 패턴을 그린다는 것이다.

자발적 비참여 집단 중 수준2에 해당하는 인구가 46.2%로 가장 많고, 수준 3은 27.38%, 수준 1은 18.75%를 기록하고 있다. OECD(2013)에서는 수준3을 현대인이 직장 및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능력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약 70%는 수준2 이하의 낮은 언어 능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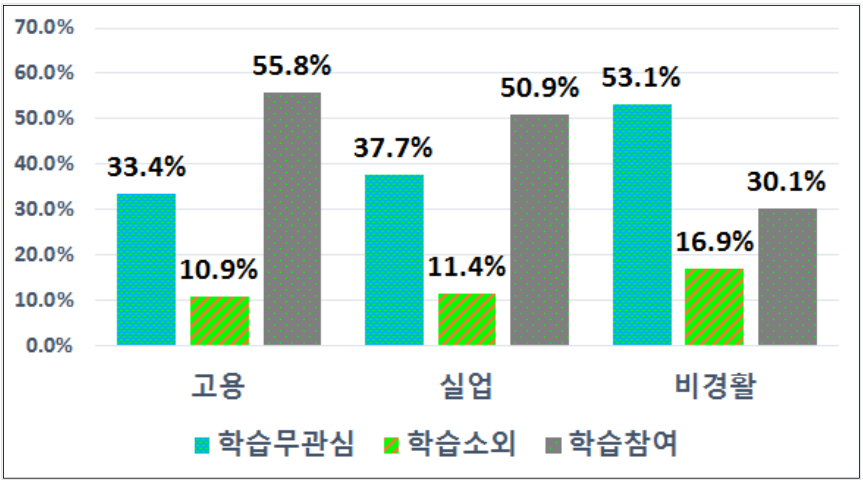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발적 비참여 인구는 초기교육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역량 수준이 고착되고 있으며, 이는 학습에 대한 소외 경험과 학습능력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습에 대한 자발적 비참여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경제활동무관심과 자발적 비참여의 공존

경제활동에 대한 비참여는 학습활동에 대한 비참여를 수반하고 있다.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있는 인구의 상당수는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NEET 인구였다. [그림 Ⅳ-3]은 한국에서 NEET인구의 평생학습참여 양상을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13.7%는 지난 1년간 자발적 비참여 상태인 동시에 현재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인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Ⅳ-3] 한국의 전체인구대비 NEET여부별 평생학습참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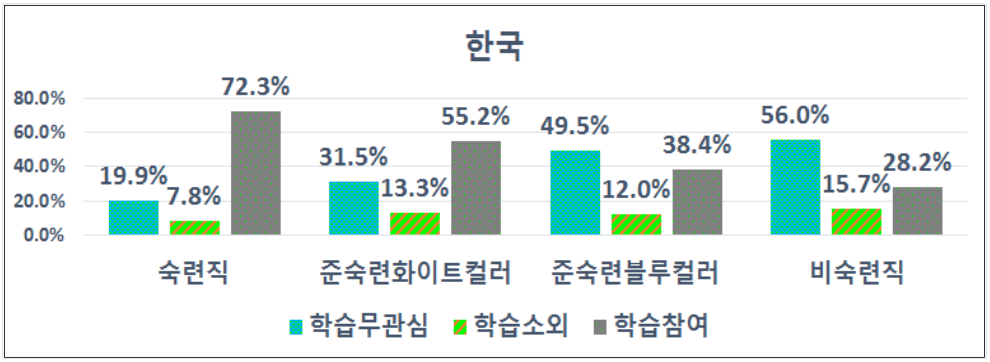
[그림 Ⅳ-4] 한국의 경제활동상태별 평생학습참여양상

또한 [그림 Ⅳ-4]를 보면, NEET 인구 중에서도 실업 상태의 인구보다 비경제활동상태의 인구에서 자발적 비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구직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와 학습활동에도 무관심한 상태가 공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비경제활동 상태의 인구를 단일한 성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대한 비참여와 학습활동에 대한 무관심이 공존한다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서 유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학습참여에 있어서도 거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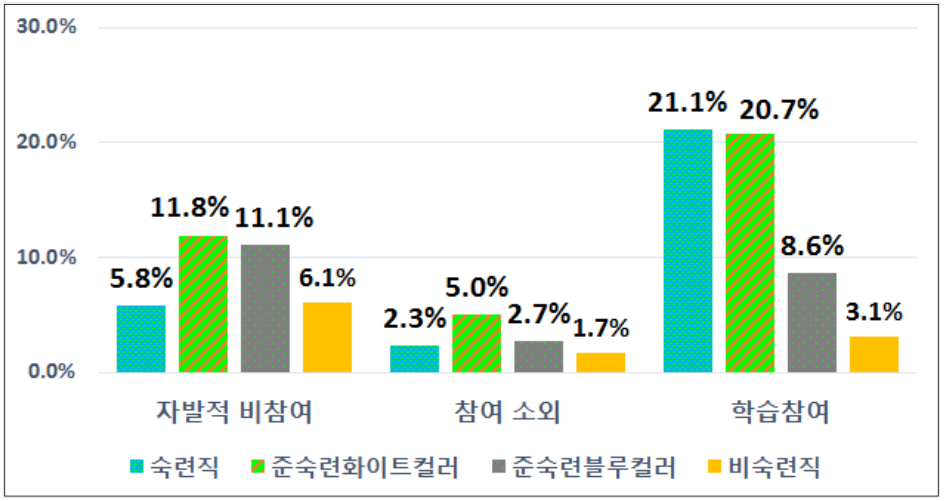
4) 직업: 학습친화 혹은 무관심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분포는 개인이 속한 직업 세계의 성격이 학습친화적인가 혹은 학습과 거리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난다. 직종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직업군에 따라 자발적 비참여의 비중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5] 직종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양상 분포

[그림 Ⅳ-5]에서 직종에 따른 참여양상 분포를 보면, 비숙련직과 준숙련블루컬러 직종의 자발적 비참여 비율이 화이트컬러 직종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 소외 상태를 중심으로 볼 때, 계층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직종에 따라 학습기회가 불평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학습에 대한 문화와 친화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Ⅳ-6] 전체인구대비 평생학습참여양상에 따른 직종별 인구

[그림 Ⅳ-6]은 한국에서 인구 전체를 100으로 두었을 때, 평생학습 참여양상의 인구비중을 직종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PIAAC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비숙련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성인 인구의 10.8%를 차지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6.1%가 학습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었다. 전체의 22.4%를 차지하는 준숙련 블루컬러 직종 노동자의 절반인 11.1% 역시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있었다. 비숙련 직종 및 블루컬러 직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학습에 무관심한 상태가 만연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자발적 비참여가 전체적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련직 및 화이트컬러 중심의 직업 세계와 블루컬러 및 비숙련직 중심의 직업 세계는 학습에 대한 친화도가 상반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일상적으로 학습기회를 마련하고 직업세계에서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학습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반면, 후자는 직업세계에서 학습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학습기회가 쉽게 제공되지 않는 직무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1) 자발적 비참여는 학습‘동기’의 결여인가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는 학습에 대한 개인의 선호 또는 의지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평생학습 참여 관련 연구에서 참여자의 동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도 이와 관련된다. 김영석(2012: 32)은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와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논문에서 “누가 교육에 참여하고, 왜 참여하며, 꾸준히 참여하는 지는 ‘동기’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성인학습자를 학습에 대한 특정 ‘동기’가 있는 인구로 간주할 경우, 학습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환원된다. 이 때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묘사는 마치 ‘건강하고 근면한 시민이 학습동기를 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상적 이미지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의 분석은 학습에 대한 자발적 비참여 혹은 학습에 대한 무관심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한 성인의 학습참여 경험과 학습에 대한 태도는 그의 사회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즉, 학습참여에 대한 관심은 구조적으로 생성된 ‘취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Bourdieu(1979: 114)는 그의 저서 <구별짓기 La Distinction>를 통해 사회적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취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성향이 사회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면서 “특수한 생활조건과 관련된 조건의 산물인 이 미적 성향은 동일한 조건의 산물인 모든 사람들은 함께 묶어주는 반면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무언가에 대한 선호와 취향은 전적으로 개인적일 수 없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묶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은 사회적 구조가 체화된 개인의 의식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Swingewood(1998: 164)는 아비투스를 '사회화된 주관성(socialised subjectivity)'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아비투스란 "습관이 아니라 지속하는 성향 또는 속성의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사회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속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Bourdieu에 따르면 인간은 그가 위치해 있는 장(field) 속에서 장 그 자체의 사회적 구조를 내면화한다.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의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취향과 관심 역시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습에 대한 무관심과 비참여 현상 또한 개인적인 동기의 부족이나 심리상태라기보다, 개인의 생활조건과 계층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차별화된 취향일 수 있다. 자발적인 학습 비참여 현상은 '사회화된 주관성'으로서 그가 속해있는 계층과 집단의 사회적 구조가 학습을 필요치 않은 것으로, 학습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으로, 학습은 낯설고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회화 시킨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2)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자발적 비참여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성인인구 분포를 볼 때, 저학력 및 저숙련, 고령층 집단에서 학습에 대한 무관심 성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 다른 집단과 차별화되는 인식을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에게 학습참여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활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들이 위치해 있는 사회 조건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의 성격과 구조가 내면화될 때, 학습에 대한 무관심은 체화된다.

아비투스에 대한 Swingewood(1998: 168)의 설명처럼, “성향은 나중의 경험들에 의해 수정되기도 하지만, 성향체계는 ‘제2의 본성(second nature)’으로, 즉 행위자들과 그들의 과거를 연결해주는 ‘체화된 역사(embodied history)’의 형태로 행위자들에게 깊이 스며들고 내면화된다”. 학습에 대한 ‘낯섦’이 내면화된 이들에게 평생학습 참여는 매우 어색하고 불필요한 일처럼 나가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학습기회가 쉽게 주어지더라도 실제 참여에 이르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기교육에서의 차별화는 자발적 비참여를 유발하는 중요한 구조적 조건화 과정이 될 수 있다. 즉, 초기교육에서의 선발과정이 ‘공부에 어울리는 사람’과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구조적 계층화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등 교육 미만 학력자의 자발적 비참여 비중은 국가별로 최대 66%(독일, 영국)를 상회한다. 국가마다 초기교육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성취에 따른 선발과정을 거친다. 인문계와 직업계 등의 계열구분 및 고등교육 단계로의 진학 여부 등은 학교교육을 통해 차별화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진 사회적 구조는 그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습에 대한 태도까지 내면화 시킬 수 있다. 학업능력이 열등하다고 일찌감치 분리된 이들에게 학습이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실패하기 쉬운 것, 쓸모가 별로 없는 것 등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체화된다. 저학력 성인들에게 학습에 대한 실패감과 거리두기는 초기교육 이후의 성인 연령에 이르러서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평생학습 비참여 현상의 구조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볼 때, 평생학습 참여 혹은 비참여의 문제는 학습기회가 계층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가 아닌, 학습에 대한 관심이 계층 간에 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학습참여 유도

자발적 비참여 인구는 저역량과 저학력, 저숙련 노동 및 비경활 상태 등의 구조 속에서 학습에 대한 '낯섦'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을 평생학습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은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내릴 수 있는 시사점 중 한 가지는 학습참여에 대한 외부적 장애요인을 제거한다하더라도 평생학습 참여율을 쉽게 상승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평생학습지원체제의 발전으로 경제적, 시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면 학습참여가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학습지원체제가 학습기회를 보장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40%의 인구가 학습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라면 학습참여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연구에서 비교한 독일, 영국, 핀란드 등 3개국에 비하여 참여 소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간다면 참여 소외 집단의 규모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비참여 인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요청된다. 초기교육 단계에서 '학습에 어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선발방식은 성인기의 학습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의 평생학습 공급체계가 고학력자와 중산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저학력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이 학습참여를 '중산층의 문화'처럼 차별화하여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 및 사회활동에서 의무적인 학습참여 기회가 있을 경우, 학습참여 경험을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평생학습참여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핀란드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 핀란드에서 학습에 지속적으로 의지와 관심을 갖는 확장적 학습참여인구는 오히려 한국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높은 평생학습참여율을 만드는 것은 제한적 학습참여 상태의 인구이다. 즉, 모두가 항상 학습을 욕망하고 학습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상태를 지향하기보다 노동 및 시민사회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에 노출되고 학습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일상적으로 제공이 될 때, 평생학습은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 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2. 결론

성인의 학습참여는 이제 특정한 소수의 일이 아니다.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상징되는 적극적 성인학습자만으로 성인의 학습참여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평생학습 참여 인구가 50%에 달하면서 성인 인구 전체를 학습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비참여 현상의 구조적인 성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PIAAC데이터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학습비참여 집단을 자발적 비참여 집단과 참여 소외 집단으로 분리하여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존의 평생학습 참여와 비참여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평생학습참여양상의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객관적인 학습참여 경험과 주관적인 학습참여의사의 유무를 교차시킨 평생학습참여양상은 학습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반영된 자발적 비참여와 참여 소외, 제한적 참여 및 확장적 참여의 학습참여양상 구분을 가능케 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성인인구의 구조적인 분포를 확인하였다. 자발적 비참여 집단은 한국, 영국, 독일에서 전체 인구대비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많은 성인들에게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자발적 비참여 상태는 저학력, 저숙련 직종, 고령층 등 주변화된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학습참여는 고등교육 이수자와 화이트컬러 직종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소외계층은 학습 자체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인구와 확장적 학습참여 인구는 사회경제적 배경 상에서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비참여 상태의 성인은 두드러지게 저조한 언어능력을 나타냈다. 부족한 초기교육과 일상에서의 학습 부재는 낮은 역량을 고착화시키며, 이는 다시 성인기의 학습참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역량과 자발적 비참여의 결속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학습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됨을 시사한다.

참여 소외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은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학습 참여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사회적 평생학습지원체제'의 확충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학습비 부담을 줄이거나, 더 많은 교육기관을 통해 더 쉽게 학습에 참여시키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인구들이 학습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자발적 비참여 집단이다. 학습 비참여 인구의 70~80%는 학습참여의사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 사회적 학습지원체제가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이들로부터 학습에 대한 적극성과 관심이 성장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학습지원체제의 성장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를 자발적 비참여 집단의 개인적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 학습에 관심이 없는 성인들에게 '학습에 관심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것은 계몽운동에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발적 비참여 집단의 특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저학력 성인, 미숙련 블루칼라 직종의 노동자들, 저역량의 성인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 비참여 상태에 놓여 있다. 학습참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들의 배경에는 계급적, 계층적 특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비교한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자발적 비참여 상태가 구조적인 조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그가 사회구조적으로 위치해 있는 조건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연관지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평생학습 비참여 현상의 구조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자발적 학습 비참여 현상은 개인의 참여동기가 결여되거나 학습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학습비참여 현상은 학습과 유리된 구조가 그 속에서 작동하는 개인들에게 학습에 대한 낯섦과 불편함을 내면화시켜 나타나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평생학습 비참여 현상의 원인은 학습 기회가 불평등하게 부여되기 때문이라기보다, 학습에 무관심한 상태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 참여현상을 설명할 때, 평생학습 참여인구의 확대는 자명한 목표처럼 여겨져 왔다. 그리고 평생학습 비참여 인구는 향후 평생학습체제가 확대될 때 학습참여인구로 포함될 잠재적 학습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비참여 현상을 생성해내는 구조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학습에서 유리된 장(field)과 학습참여가 일상화된 장(field)의 차별화된 구조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영상 (2009).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2), pp.105-132.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구주형・한상훈・강훈 (2015).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 참여동기, 학습성과에 관한 구조적 분석.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pp. 4537-4548.

김미숙 (2006). 성인 평생학습 불평등 요인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편).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조사 학술대회(2006. 9. 22). pp.59-88.

김영석 (2012).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 및 학습동기 연구동향분석. Andragogy Today, 15(1), pp.31-62.

김진화・전은선 (2013). 평생학습자로서 직장인의 평생학습역량에 대한 탐색적 실증연구. 한국산업교육학회. 2013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7-98.

김진화 외 (2013) 평생학습자 유형의 군집화와 특성프로파일 탐구. 평생교육학연구 19(2), pp271-300.

김한별 (2007).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박나연 (2014). NEET가 장기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남재량 (2011). 최근 청년 니트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72. pp29-40.

_____ (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85, pp39-54.

박선향 (2011). 고등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7(2), pp.65-92.

박양주・황지원・남신동 (2014) 평생학습 잠재수요집단의 유형 분류: 학

습 참여동기에 대한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0(1).
손준종 (2004). 성인학습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결정요인 분석: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0(2), 109-128.
전은선 (2013).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역량에 관한 탐색적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전혜숙 (2009). 경제활동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 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12(1), pp.57-77.
임언 (200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9(2) pp.121-149.
____ (2013). 제1장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개요.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편),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민주 (2012). 평생학습자의 특성프로파일과 평생학습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채창균 (2007). 제7장 평생학습 참여 실태 분석. 박세일(편), 평생학습사회 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 169-188,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개혁포럼.
최돈민・이세정・김세화 (2008).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4(4), pp.29-55.
최동선・최수정 (2013). 제5장 평생학습.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편).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수정 (2013). PIAAC 데이터의 특성 및 변수 설명.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워크숍(2013.10.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윤정 (2015). 평생학습 참여의 역량 효과 연구: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코드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숭희 (2009).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한숭희 외 (2007). 평생학습 지표개발 및 통계조사체제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숭희・신택수・양은아 (2007). 평생학습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학습자배경, 학습패턴 및 자기보고 핵심역량이 평생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학연구, 13(2), pp.93-118.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 평생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Bolhuis, S. (2003). Towards process-oriented teaching for self-directed lifelong learning: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Learning and instruction, 13(3), 327-347.

Bourdieu, Pierre (1979). Distinction.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Chapman, J. D., Cartwright, P., & McGilp, J. (Eds.). (2007).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equity (Vol. 5).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Clair, R. S. (2012). The limits of levels: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s (IAL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8(6), 759-776.

Collins, J. D., Holcomb, T. R., Certo, S. T., Hitt, M. A., & Lester, R. H. (2009). Learning by doing: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2(12), 1329-1334.

Courtney, S. (1992). Why Adults Learn: Towards a Theory of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Routledge, Chapman & Hall, 29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Cross, K. P. (1981). Adult as Learners. San Francisco: Jossey-Bass.

EU (2002). Quality Indicatiors of Lifelong Learning

Fassinger, R. E. (2008). Workplace diversity and public polic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63(4), 252.

Field, John(2003) Civic engagement and lifelong learning: Survey findings on social capital and attitudes towards learning.

Hendrickson, D. A. (1989). Lifelong learning as a pillar of career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Sixth IEEE-USA Careers Conference. 63-65.

Illeris, K. (2004). Adult education and adult learning.

Jim Crowther (2000) Participation in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a discourse of diminishing return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9:6, 479-492

Kjell Rubenson & Francesca Beddie. (2004). Policy formation in adult education and trainning.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Ed. Griff Foley. Allen & Unwin.

Margery B. Ginsberg & Raymond J. Wlodkowski (2010). Access and Participation. Carol E. Kasworm et el.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p25-34. SAGE Publications.

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2007).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 (2012).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John Wiley & Sons.

Swingewood, Alan (1998). Cultural theory and the problem of modernity. 박형신 (역). 문화사회학 이론을 향하여 : 문화이론과 근대성의 문제. 파주: 한울.

OECD (2003). Beyond Rhetoric: Adult Learning Policies and Practices.

_____ (2013a),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blishing.

_____ (2013b). Skilled for Life? Key Finding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 국제성인역량조사 주요 분석 결과.

_____ (2014). Learning begets learning: adult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Rosemary Preston & Caroline (2003)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Lifelong Learning : an editorial introduction

Abstract

The Study on the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Voluntary Non-participation in the Lifelong Learning
- Based on the PIAAC data -

KIM HYUNSOO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voluntary non-participation phenomenon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PIAAC: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Until now the voluntarily non-participating population in the lifelong learning was considered to be a complementary part of the participating population. Especially, the adult population that was voluntarily not participating in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me was regarded as being in a psychological state which lacks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the learning programme. Because of this influence, not much attempt has been done for drawing the topographic structure of this group. Under the light of the phenomenon of adult population which is voluntarily not participating in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me, this thesis will explain the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is group.

For the analysis this study applies a new framework concept, namely "Aspects on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This links the objective experience of learning participation and the subjective decision for learning participation. Further on, it becomes an analysis measurement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members of a society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m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made by the "Aspects on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the non-participating population can be divided into 'voluntarily non-participating' and those who are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The population which has experience in participation can be divided into 'expanded participation' and 'limited participation'.

'Voluntary non-participation' defines the population which has no experience in participation and no intention for participation. 'Restricted from participation' defines the population which has intention for participation but is not able to participate due to external obstructive factors. 'Limited participation' defines the population which has a previous participation experience but does not want to take part in additional learning programs. 'Expanded participation' defines the population which has previous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has will to take part in further learning programs.

Based on the data from the PIAAC in the following four countries, namely South Korea, United Kingdom, Germany and Finl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actor of the socio-structural background has a close influence on the voluntarily non-participating in learning population. In this sense, the non-participation phenomenon was not lead by those who weren't able to participate in

the learning, but by those who voluntarily were not participating, which appears as collectivism according to the similar socio-economical background.

The population of voluntary non-participants takes up to 40% of the overall population of South Korea, Great Britain and Germany. This number throws a sideline on the fact that for many adults, participation in learning is neither something out of the everyday life, nor a compulsory thing. What is more, the percentage shown above is concentrated in the under-educated, low-skilled job, elderly class in society which is in one word marginalized. An observation can be made that the group of the socially excluded population is not given a natural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learning programme. Moreover, even if such a chance is being granted, they do not show any interest or will for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adult in the state of voluntary non-participation shows striking low-literacy skills. The lack of initial education and the absence of learning in the everyday life becomes a factor for the low competence among this group. And this is continued into a loss of interest in the learning participation during adulthood. The structure of differentiation depending on the achievement in studying in the initial education and the suppling method for the lifelong learning among the middle-classed and highly educated people is interpreted as the recreational factor for the loss of interest and the gap in learning.

This analysis makes the following conclusion abou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phenomenon of loss of interest in learning. The problem of the voluntary non-participation is not the absence of personal motivation, nor in the personal preference for learning. The phenomenon on non-participation in learning shows that the structure

which is isolated from the learning program internalizes within the individuals of the group, loss of interest in learning, hostility towards learning, and unfamiliarity. Namely, the reason for the voluntary non-participation in the lifelong learning should not be viewed as due to the unbalanced assignment of the chance for learning, but as the recreated socio-structural state of loss of interest in learning. Therefore,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the voluntary non-participation in the lifelong learning, socio- structural research on the cultural polarization of the group which has an educational-friendly attitude towards learning and the group that lacks this kind of attitude has to be done.

keywords : PIAAC,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Voluntary non-participation, restricted from participation

Student Number : 2014-20878